

## 각 대학 '동문기부 끌어오기' 총력

### 기부자 발굴 위한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적극적 홍보 요구돼



우리학교는 작년 5월부터 '동문기부 한 번 더 내기' 운동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학교는 건학 100주년을 맞이해 동문들을 대상으로 한 발전기금 마련 방안으로 '동문기부 한 번 더 내기 운동'을 시작했다. 일산불교병원 설립기금을 위해 불자들을 중심으로 기부금을 유치해 온 이전의 방식과는 달리 이 운동은 장학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월 3만원씩 8년간, 또는 월 5만원씩 5년간 300만 원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해 동문들에게 큰 부담 없이 모교발전을 위한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캠페인이다.

지난해 5월부터 이 운동에 참여한 동문은 총 300여 명으로, 지금까지 약 6억 8천만 원이 약정됐다. '동문기부 한 번 더 내기 운동' 외에 학교발전기금에 참여한 동문은 총 20만 명중 2.5% 정도이다. 학교 측은 앞으로 동문참여 비율 목표를 20%로 잡고 있다.

#### 동문 기부금 유치의 중요성

우리학교 뿐만 아니라 최근 각 대학들이 동문 대상 기부금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액수의 면에서 보면 일반 동문들이 기부하는 금액은 기업들이 내는 거

액에 비해 작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재학생, 교직원과 함께 학교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동문 참여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동문들의 모교에 대한 관심은 재학생들에게 애교심을 심어줄 수도 있다. 동문 참여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로는 대학평가가 국제화되면서 발전기금에 있어 동문 참여율이 대학 평가 순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미국대학의 경우 동문들의 기부금 참여 비율이 60% 내외라는 사실은 국내대학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동문 데이터베이스 보완 절실

우리학교는 현재 총동문회의 동문 연락처와 방학 중에 동문 풀 센터에서 작업한 명단 중 연령대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추린 4만여 동문들에게 발전기금 마련 홍보를 하고 있다. 지난해 6월과 7월 100여명의 전화모금 서포터즈 홍보 역시 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들에게는 학교소식지인 동국타임즈가 발송되는데 이 중 2~3천여 건이 반송된다. 이러한 동문들에게는 다시 연락을 하여 주소록을 갱신하고 있다. 하지만 총 20만 동문중 4만 여명의 수는 전체 인원에 비해 적은 수의 데이터베이스라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학교보다 1년 먼저 건학 100주년을 맞은 고려대의 경우 교우회에서 총 동문 23만여 명중 12만여 동문의 연락망을 관리하여 홍보하고 있다. 졸업생들에게 학교의 발전상황을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는 데 있어 동문 연락망의 중요성을 생각해보면 잠재기부자를 찾아 내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 각 대학 참여유도 각양각색

모금 방식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방법이었던 ARSL나 지료용지 납부보다는 지정한 계좌에서 약정한 금액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CMS방식이 최근 추세다. 속

명여대의 경우 모금방식을 다양화 하여 발전기금·유산 등의 1% 적립이나 카드회사와 제휴해 카드사용액의 0.2%가 적립되는 발전기금도 있다. 하지만 모금방식이 많을 경우 집중이 흩어질 수도 있다는 문제도 있다. 오프라인을 통한 직·간접적인 홍보도 여러 종류가 있다. 현재 연세대, 고려대, 중앙대 등에서 해마다 입학 30주년을 기념해 '홈커밍데이(Home coming day)'가 열리고 있다. 우리학교의 경우 지난해 5월 건학 100주년을 맞아 '동국인 한마당'이란 행사를 개최했지만 정기적인 동문행사는 아직 미흡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오영교 총장은 '108 프로젝트'에서 홈커밍데이 행사 등 동문과 학교의 유대 강화 행사 개최를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학교도 올해 안에 이와 같은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성균관대의 경우 우리학교와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홈커밍데이는 없지만 2만여 동문 및 가족, 재학생이 참여하는 '성균관의 날'이 비정기적으로 열린다. 또한 대외협력처 산하에 동문대상 학교발전 홍보동아리 'S-angel'을 운영 중이다. 이들은 동문행사가 열릴 경우 안내 및 학교의 발전 상황 등을 동문들에게 설명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위치한 동문들을 방문하여 재학생과 졸업생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기부액에 따라 학교 강의실이나 기념품에 기부자의 이름을 넣는 네이밍 도네이션의 활성화도 꾀할 만하다. 현재 우리학교에는 문화관의 덕암 세미나실만이 네이밍 도네이션의 적용사례다. 지난해까지 25여 원을 기부한 권오춘(영문 61졸) 동문도 네이밍 도네이션이 논의 중이지만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대외협력처 박희상 과장은 "이 제도를 활성화하려면 앞으로 신축 또는 리모델링 되는 건물의 로비나 연구실에 적용이 가능해 질 것"이라 밝혔다.

'동문기부 한 번 더 내기 운동'이라는 참신한 발전기금 마련 방식의 도입처럼 더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캠페인 개발과 체계적인 홍보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확충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선담은 기자  
ssundam@dongguk.edu

중앙대는 동판, 엘리베이터, 강의실 의자 등 다양한 네이밍 도네이션을 기획하고 있다.(사진 위) 성균관대 S-angel의 활동 모습(아래 왼쪽) 연세대의 '홈커밍데이' 행사(아래 오른쪽)



"함께 여행가요" ... 지난해 펼쳤던 신입생을 위한 동아리들의 홍보로 불똥은 사진은 여행 동아리 '유스호스텔'이 팔정도에 텐트를 설치하고 신입생들에게 동아리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

김나리 기자 viki26@dongguk.edu

## 연봉제 도입 등 대학혁신 새바람 우리학교가 선봉될까

오영교 총장이 대학경영의 신모델을 구축하고자 선출된 직후부터 3개월 간 만들어진 '108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108프로젝트는 오 총장 재임 4년간의 경영 방침과 우리학교의 미래비전, 발전전략 등을 담은 것으로, 학교발전을 위한 과감한 개혁을 시사하고 있다.

선포식이 치러진 지난 13일 이후, MBC, YTN,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각종 보도매체에서는 일제히 관련 뉴스와 기사를 보도했다. 이들이 주목한 점은 바로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봉제의 전면 실시, 즉 성과별 차등제이다.

오 총장은 교직원 급여를 서울시 상위 5개 대학 수준으로 올리는 대신 내년부터 연봉제를 도입해 기본급 70%, 성과급 30% 정도의 임금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봉제가 도입되면, 성과별 차등폭을 최대한 넓혀 동일직급에서 최고 1천만 원 이상 임금 차이가 나게 된다. 이는 올 하반기에 시범적용한 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덧붙여 과감한 교원평가도 시행된다. 연구·교육 실적 뿐 아니라 기금 모금과 산학연구유치실적 등 학교기여도를 평가하는 항목도 신설한다.

단과대와 학과별 평가를 병행하는 것도 파격적인 내용이다. 취업률이 나 입학경쟁률에서 뒤처지는 학과와 경우 매년 정원을 10% 가량 줄이고, 대신 경쟁력 있는 학과의 정원은 늘린다.

이에 지난 14일자 내일신문은 "동국대 오영교 신임 총장이 꺼내 놓은 '혁신 드라이브'가 올 한해 대학사회에 이슈를 만들어낼 전망이다"이라며 "교직원 연봉제를 실시할 경우 다른 사립대학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한 문화일보는 사설을 통해 "대학교육의 질은 물론 학문 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이같은 '교수 월급통계기' 바람은 대학

사회 전역으로 확산되고 정착돼나 가야 한다"며 "스스로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대학의 자구노력, 그 신선한 변화를 주목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이 크게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우리사회에서 대학이라는 공간이 개혁바람이 불지않는 거의 유일한 무풍지대였기 때문이다. 정년이 보장되는 교수들에게 성과중심의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사실은 확실히 '철밥통의 위기'라 볼 수 있다.

교수들의 개혁에 대한 우려는 지난 13일 본관 중강당에서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108 프로젝트' 선포식 자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이날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김한(영어영문학과) 교수는 "평가에 대한 보상보다 자신의 일에 대한 애정으로 열심히 일하는 교수들도 있는데 오히려 평가 도입으로 그 모습이 왜곡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인문학 교수로서 "돈을 못 벌어서 오는 학문일지라도 신경 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오 총장은 "변화와 혁신에는 반발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학교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며 연봉제를 반대하는 것은 '일을 안하겠다'는 말밖에 안된다"고 밝혔다.

오 총장이 대학가에 혁신의 새바람을 일으키며 우리학교를 일류대학으로 끌어올리는 데에는 이 같은 교수사회의 개혁에 대한 동요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달려있다.

이주현 기자  
nitake@dongguk.edu



지난주 각종 언론매체에서 우리학교의 '108 프로젝트'에 대해 보도했다.

### 동대신문사 수습기자 모집

**응시자격** 1학년 재학생  
**원서접수** 3월 22일 목요일 오후 5시까지  
**전격면담** 3월 22일 목요일 오후 6시  
**원서내부** SC제일은행 옆 본관 1층 동대신문사 사무실  
<http://www.dgupress.com>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문의** www.dgupress.com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TEL: (02) 2260-3491-2 E-mail: dgupress@dongguk.edu  
**혜택** 소정의 활동비, 장학금 지원  
 교내 국제교육원 주관 어학특강 방청 무료 수강, 언론 교육기관 무료 수강  
 \* 보호자 월 의료보험료 5만원이하인 학생의 경우 등록금 전액 감면

### 커버스토리 GLOBAL UNIVERSITY

#### 캠퍼스, 국경을 초월하다

요즘 캠퍼스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만나는 것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세계 속에 경쟁력을 가진 대학이 되기 위해 국경을 넘어선 교류가 한창이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 우리 신문은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 교원학생제도와 영어강의 확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본다.

**관련지면** 3면 교육면  
 - 영어강의, 이제는 피할 수 없다  
 4면 커버스토리면  
 - 교환학생을 꿈꾼다면 여기를 주목하라  
 - 교환학생을 위한 지침서  
 5면 기획면  
 - 외국인 교환학생과 함께 대학생활 특별하게 보내요  
 - 국경 없는 특별한 친구  
 8면 문화면  
 - "동악을 누비며 한국을 느끼다"

책값 부담을 덜기 위한 제안

# 학내 '헌책방' 도입 어때요?

## 여러 대학에서 시행 중 ... 학생들의 호응도 높아

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은 등록금 부담 외에 한 가지 걱정이 더 있다. 바로 한 권에 2~3만원을 훌쩍 넘는 대학 교재, 즉 책값 부담이다. 많은 학생들이 매 학기 5만원에서 최대 15만 원 이상 지출하고 있다.

일반 헌책방을 가는 경우도 있지만 책을 구하기는 어렵다. '회계원리'나 '미적분학'과 같이 우리 대학교에서 지정된 교재들이 많기 때문이다.



▲경희대 총학생회가 진행한 '교재장터'

또한 일부 교수들의 경우 수업과 크게 관계없이 자신의 저서이기 때문에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어 학생들의 책값 부담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성신여대 수정관에 열린 '헌책방'

이번 학기에 교재를 10만 원 이상 구입한 한희운(회계2) 양은 "중앙도서관에서 빌리기도 힘든 참고서적까지 구입하기는 부담스럽다"며 "선배들을 통해 구하려 다니고 있지만 역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속명여대 홈페이지 '청파장터'

학생들의 이런 책값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타 대학에서는 학내 '헌책방'을 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화여대의 경우 매 학기 초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활)에 소속된 생활학생위원들이 주축이 돼 헌책방을 열고 있다. 올해는 지난 2일부터 시작했는데 책을 팔고자 하는 학생들이 교재를 생활에 맡기면 6일부터 사흘간 생활학생위원들이 일반 학생들에게 파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책값은 판매자 스스로 정했으며 비조합원인 경우에만 10%의 수수료를 받을 뿐 판매금 전액을 돌려줬다.

우리 학교에도 헌책방을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벼룩시장'이라는 이름의 게시판을 만들어 책을 비롯한 물품을 서로 사고팔 수 있게 했지만 지난 해 5월 홈페이지가 개편된 이후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률은 저조한 편이다.

학생자치단체에서 직접 나서는 경우도 있다. 경희대는 총학생회(회장=김병민)가 '교재장터'를 열어 중앙도서관 앞에서 일주일간 진행했다. 판매자가 원하는 금액을 책정해 판 수익에서 학교발전기금

으로 10%를 제외해 돌려줬다. 이와 관련해 총학생회는 "첫날은 10권미만으로 시작했지만 이용자 수가 점점 늘어나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성신여대도 각 단과대 학생회가 나서서 '헌책방'을 운영하고 있다. 이 헌책방은 지난 97년 IMF 직후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진 학생들이 배려해 시작한 책 바퀴쓰기 운동에서 시작한 것으로 학생들의 반응이 좋아 매년 시행해 오고 있

는 것이다. 각 단과대 학생회에서 학기 말 학생들에게 쓰지 않는 헌교재를 원가의 반값에 사고 다음 학기가 개강하면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원가의 60%의 가격으로 팔고 있다. 성신여대 인문대학총학생장은 "수익인 10%는 불우이웃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학교에도 헌책방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벼룩시장'이라는 이름의 게시판을 만들어 책을 비롯한 물품을 서로 사고팔 수 있게 했지만 지난 해 5월 홈페이지가 개편된 이후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률은 저조한 편이다.

우리와 같이 홈페이지를 통해 '청파장터'를 운영하는 속명여대의 경우 홈페이지의 활발한 홍보를 통해 홈페이지 이용률 뿐만 아니라 더불어 교재장터의 이용률도 높고 있다. '청파장터'에는 학기 초 하루에도 수백여건의 글이 올라왔다.

우리학교 안에서도 오프라인 헌책방을 볼 수는 없을까. 이에 대해 생활(이사장=송일호·경제학)의 이재욱 팀장은 "우리학교는 학교에서 직영서점을 운영해서 책값의 5%를 적립해 학생의 부담을 줄여 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형주(통계4)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2학기에는 오프라인 헌책방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년 오르는 등록금과 더불어 학생들을 가버는 지갑을 더욱 가볍게 하는 책값. 많은 학생들이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기로 한겨워 하지 않도록 학교 안에서 활성화된 '헌책방'을 볼 수 있길 바란다.

김나리 기자  
viki26@dongguk.edu



"대학은 죽었다" ... 지난 13일 총학생회(회장=정형주·통계4)는 '108 프로젝트' 선포식이 열리고 있는 본관 앞에서 등록금 인상과 성폭력 교수 책임론에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정형주 총학생회장과 최운철(경영4) 부총학생회장은 상복 퍼포먼스를 연출하기도 했다.

### 기자라는 이름으로

학교신문 기자로서의 일주일의 고뇌다. 학업과 신문제작을 병행하는 것보다도 학기 기자를 바라보는 취재원들의 시선이 기자를 더욱 힘들게 한다.

학내 새로운 소식을 알아보고자 출입처를 방문하면 몇몇 취재원들은 경계의 눈빛을 보내고, 반면에 기자로서가 아닌 어린 학생으로만 생각하고 귀찮게만 보는 취재원도 있다. "기사 잘 써주세요"라는 말과 함께 미심쩍은 눈초리로 끝인사를 하는 학생대표도 있다.

학생기자라는 명함을 가지고 있는 이상 언제나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대학을 바라보려 한다. 교직원들을 일일이 만나 취재하다 보니 일반학생들보다 학교 내부사정에 대해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교 발전기금은 얼마나 들어오는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학사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곧 시행하게 될 새로운 사업은 무엇인지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다 보면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학교에 자부심을 갖게도 된다.

하지만 많은 취재원들은 기자가 깊은 곳까지 캐묻는 것에 대해 많은 거부감을 갖고 있다. 지난 번 '108 프로젝트'에 대한 기사를 쓰기 위해 취재할 때도 다방면으로 살고 깊이가 있는 기사를 쓰고자 계속해서 취재원에게 질문하게 됐다. 하지만 많은 취재원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학교의 큰 계획이 어린 학생기자의 시각으로 의미가 퇴색된 채 기사화 될 것을 우려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스러워했다. 학생기자로서 프로정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이었다.

내용에 있어서도 학교를 깎아내리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기사를 쓰는 것이 아니기에 어떠한 문제에 대해 '좋다 혹은 나쁘다'로 단순히 평가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이렇게 발전해야 한다' 또는 '이 부분은 이런 이유로 좋지 않다' 식으로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기사를 쓴다. 또한 타 대학의 예시를 위해 학교선정을 할 때 막무가내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학교가 처한 현실과 비슷한 수준의 대학들을 택해 취재하곤 했다.

건학 101년이라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학교의 학생으로 공부하고, 기자로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학교가 가진 문제점을 드러내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학교가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쓰는 기사라는 것을 동대신문의 모든 취재원과 독자가 공감해 주길 바란다.

김나리 기자  
viki26@dongguk.edu

# 헌책방

108분 토론

○...400명 중 5명만에 듣기. 오지한다 객관식 문제 풀기보다는 어렵고 로또당첨 확률보다는 조금 쉬운 질의응답 참여. 하고픈 말 있었는데 시간 짧아 못했네. 듣고픈 말 있었는데 시간 짧아 못 들었네. "질문하실 분 더 안 계십니까?" 그 한마디 없이 허둥지둥 끝나 버린 108분짜리 대토론회. 말 못한 이의 아쉬움은 108%(!)

## 복수전공지가

○...복수전공자야 복수전공자야 무늬만 복수전공자야 너 때문에 정말 복수전공하고 싶은 사람들 하지 못한다. 하지도 않는 복수전공 여석을 내어 놓아라

내어 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 신원파악 불가

○...내가 누구게? 내가 누구게? 나가 OO학과 전공생 문뻐이여! 내 학생증에 아직 이전 학과가 써있다고 나가 겁때기로 보여? 학부생은 공짜로 바퀴준다면서 너는 왜 안되는거! 사백이 너는 학부에서 올라왔다며 왜 아직 모르는거? 누가 알려주지도 않는거?

## 동국 뇌우스

○...앵커 = 동국 뇌우스입니다. 우리학교 졸업생들은 책 한 권 읽으려면 계속 학교를 나와야 한다면서요. 김 기자, 자세한 소식 알려주세요

김 기자= 네, 저는 우리학교 중앙도서관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졸업생의 경우 도서관 출입은 가능하지만 도서 대여는 할 수 없다는데요. 책을 읽고 싶다면 학교를 계속해서 방문하라는 학교의 애교심 고치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옆에 나와 있는 졸업생에게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졸업생 = '등록금 한번 더 내기 운동'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책 보려고 매일 등산하고 있습니다.

김 기자= 매서운 꽃샘추위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못하고 돌아가는 졸업생의 등은 땀으로 흠뻑 젖어있습니다.

## 정각원 개강법회 22일 열려

정각원(원장=박종호)이 오는 22일 오후 4시 정각원 법당에서 개강법회를 개최한다.

우리학교 이사이고 부친 석왕사 주지스님인 영담 크스님이 법사로 참여하는 이번 법회에는 교·직원과 학생, 동문 등 모두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안중철 정각원 법사는 "영담 크스님은 세상을 살아가

는데 지점이 될 수 있는 법어를 발표할 것"이라며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말했다.

## 체육부 경기 소식

우리학교 축구부(감독=김용해)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열리는 '제55회 대통령배 전국축구대회'에 출전한다. 이번 대회에는 총 35개의 팀이 출전하고, 11개 조별리그로 진행되며 조별 2위 이상

팀만 토너먼트에 진출할 수 있다. 우리학교 첫 경기는 동의대와 오는 20일 오전 11시 강남 합천군 인조단지구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아구부(감독=김학용)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열리는 '2007년 전국대학야구 춘계리그전'에 출전한다. 조별리그 첫 경기는 한양대와 오는 31일 오전 9시 30분 인천 도원야구장에서 가질 예정이다.

한편, 축구부 선수들이 U-20 청

소년 대표팀과 한국대학대표팀에 선발됐다. 김진현(체교2) 선수는 골키퍼로 U-20 청소년 대표팀에, 권경호(체교3) 선수는 미드필더로 한국대학대표팀에 선발되었다.

## 수강신청 강좌 취소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2007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강좌 취소를 할 수 있다. 수강과목 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소속대학 행정지원실에 취

소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취소신청서는 소속대학 행정지원실에 비치돼 있고,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다.

수강과목을 취소한 학생은 다른 교과목에 대한 추가신청이 불가능하다. 또한 수강과목 취소 후 수강신청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단, 4학년은 3학점 미만으로 제한되었다. 취소과목은 해당학기만 성적통지표에 표기된다.

## 복수(연계)전공 포기 신청

오는 28일부터 3일간 복수(연계)전공 포기 신청이 진행된다. 복수(연계)전공 이수율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복수(연계)전공 소속대학 행정지원실에서 서식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올해부터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 학교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도 포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 2007년 상반기 취업스터디그룹 정기 모집

취업지원센터에서는 동일한 업·직종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그룹화하여 취업교육 및 스터디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모집내용**

- 대상 : 1학년 ~ 4학년 1학기 휴학 및 재학생(졸업생 및 4학년 2학기 제외)
- 졸업시까지 성실하게 참여가 가능한 자
- 개인적으로 희망하는 업·직종 취업 준비가 관련하여 스터디를 원하는 자
- 교내에서 기 활동 중이며 학교의 지원을 원하는 취업스터디 그룹
- 선택그룹 : 직종·업종별/그룹사/기타(고시,공무원,영어 스터디 등 학습스터디 제외)

업종	직종별 취업준비 그룹	비고
① 금융업	은행, 보험, 증권 등	* 지원 업종의 희망자수가 그룹 구성 최소인원이 되지 않을 경우 그룹배정이 되지 못할 수 있음
② 유통업	부여, 유통, 판매 등	
③ 건축/건설업	건축, 토목, 설계, 조정 등	
④ IT/정보통신업	컴퓨터, 네트워크, 멀티미디어 등	
⑤ 제조업	전자/전기/반도체, 기계, 식품, 생명화학	
⑥ 매스미디어	아나운서, 방송PD	
⑦ 그룹사	업종·직종 구분없이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⑧ 공기업	공사,공단,협회	
⑨ 기타 업종/직종	①~⑧ 업종을 제외한 업종·직종	

○ 가입절차 : 가입신청 → 오리엔테이션 → 그룹구성 → 운영계획서제출 → 운영실시

○ 모집기간 : 2007. 3. 15(목) ~ 3. 23(금), 12:00까지

○ 신청방법

- 개인신청 : 취업지원센터(본관 2층) 방문 신청 (제출서류 지참)
- 단체신청 : 6명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등록기간에도 수시접수 가능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이력서 1부(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오리엔테이션 : 2007. 3. 28(수), 17:30 ~ (다함양 세미나실)

- 내용 : 취지설명, 운영계획, 그룹배정, 그룹장선출 등
- 신청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

**취업지원센터**

## 성공 취업을 위한 2007년 1차 「면접스킬 마스터 프로그램」 참가 모집 안내

학생서 취업지원센터에서는 노동부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 1차 「면접스킬 마스터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안내하오니 취업준비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목적**

- 유형별, 단계별 면접훈련을 통해 다양한 면접과정의 이해
- 면접 시뮬레이션과 Role Play를 통해 면접스킬 강화와 자신감 획득
- 유형별 면접실습을 통한 본인의 능력과약과 효과적 면접 전략 수립

**2. 교육내용**

가. 교육형태 : 1일(8시간) 면접스킬 집중교육

나. 교육일정 및 선발인원

구분	차수	일시	인원	비고
2007-1학기	1차	2007. 4. 7(토) 09:00 - 18:00	50명	예정
	2차	2007. 5.26(토) 09:00 - 18:00	50명	

다. 교육장소 : 본교 다량관세미나실

라. 프로그램 및 강사

시간	프로그램	내용	진행 및 강사
08:40~09:00	등록	출석체크 및 교재 배부	취업지원팀
09:00~10:00	면접 특강	면접의 이해 및 면접대비 인터뷰스킬	
10:00~12:00	유형별 면접실습 I (면접 Role Play)	면접 시뮬레이션(심층 + 포칭)	전문강사
12:00~13:00	점심	산책용 식사	
13:00~15:00	유형별 면접실습 II (면접 Role Play)	면접 시뮬레이션(심층 + 포칭)	
15:00~18:00	인사담당실전 모의면접	- 실전면접 + 피드백	상선전자 인사담당 한승그룹 인사담당
18:00~18:20	설문조사	프로그램 및 강사에 대한 설문조사	

**3. 모집대상 및 모집기간**

가. 모집대상 : 4학년 및 기졸업자

나. 모집기간 : 2007. 3.21(수)~3.28(수) ☎ 선발인원(50명)의 2배수(100명)까지 선착순 접수

**4. 신청장소** : 취업지원센터(본관 2층)

**5.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별첨 소정양식) ☎ 신청(접수)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6. 선발방법** : 접수순서로 선발예정

**7. 선발자 명단 공고** : 2007. 4. 2(월)이전에 홈페이지 게재

**8. 기타사항** : 교육비 전액무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취업지원팀(☎2260-3055,3059)으로 문의바랍니다.

**취업지원센터**

## 풀리지 않는 실타래 함께 풀어요

- 학생상담센터 이용안내 -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재학생 여러분의 풍요로운 대학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다음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이런 일을 합니다**

- 심리검사** : 다면적인성검사(MMPI), 성격유형검사(MBTI), 에니그램 검사, Strong 진로탐색검사, 적성탐색검사, 직업흥미검사를 수시로 실시합니다(무료). 심리검사 이후 해석은 물론 여러분의 성격, 진로 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개인상담** : 전문상담원과 상담센터 관계 교수가 학업, 성격, 대인관계, 직업 및 진로선택 등 대학생활 전반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별적으로 전화상담(Tel.2260-3931, 3932), E-mail 상담을 실시합니다.
- 집단상담** :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문상담원의 도움을 받아 함께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한 학기에 2집단 실시 정원 10명 내외 8회기)
- 진로지도** : 개인의 적성·흥미·소질·능력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적성검사 및 직업흥미 검사 전공 선택 검사 등)를 바탕으로 개인의 진로와의 고강도 전공 선택 및 합리적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올바른 성의학과 성고충상담** : 성고충상담원이 상주하여 성희롱 및 성추행 등 양성평등에 관한 고충을 상담해 드립니다.
- 심리특강개최** : 교양과 정서함양을 위해 학내외의 저명한 인사를 초빙 강연을 실시합니다.
- 외국유학생 및 해외국민 대상의 집단상담 실시** : 외국유학생들과 해외국민 학생들의 학에서의 생활 적응을 위한 집단 상담을 실시합니다.
- 학사경고 누적자 및 재입학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 학사경고 누적자나 재입학을 하는 학생들을 위한 상담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학생상담센터는 본관 2층에 있으며, 전화는 2260-3931, 3932입니다.  
\* 학생상담센터 홈페이지 주소 http://counseling.dongguk.edu

**학생상담센터**

# 영어강의, 이제는 피할 수 없다

## 2011년까지 강좌 비율 30% ... 학생·교수 참여유도 필요

최근 각 대학들이 앞 다퉈 영어교육 강화에 힘쓰고 있다. '언제까지 몇 퍼센트 이상 영어강의 비율 확대' 혹은 '영어강의 몇 개 이상의무수강'을 내걸며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취직, 어학연수, 유학 준비를 비롯해서 국제적 시각을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영어강의에 대한 고민은 필수적이다.

우리학교 역시 지난 13일 공개된 '108 프로젝트'에서 영어교육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내놓았다. 지난해 기준 8.2%의 영어강좌 비율을 2011년까지 3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올해 신입교원부터 영어강의를 의무화했다. 또한 영어강의 이수기준을 졸업요건으로 추가 설정했다. 올해 입학생부터 해당 대학(학과)은 영어진행강의 6과목을 필수 이수해야 하며, 광고홍보학과는 전공교육과정 영어강의 포함 11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이변화기에는 기초교양 131개 강좌, 전공 56개 강좌가 개설되어 총 187개 영어강의가 개설 중이다. 올해부터 학교에서 정책적으로 전공별 일정과목이상 영어강의 개설을 유도하면서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과목이 대폭 확대되었다. 광고홍보학과와 경우 다국적 광고주들이 늘어나고 광고대행사에서 영어능력을 요구하는 추세에 부응해서 올해 영어강의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이론 관련 6개 영어강의를 시범적으로 개설했고 앞으로 두 세 강좌정도 추가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입학생부터는 기초교양 영역의 English Conversation과 English Reading을 수강하기 전에 과목별 레벨테스트(Interview, D-TEPS)를 거쳐 평가결과를 3단계(A·B·C)로 나누고, 일부 과목 이수를 면제하는 등 과목 수강을 결정하고 있다. 기존에 수준 편차가 큰 학생들이 함께 수강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효과적인 수업진행을 위한 것이다. 올해에도 전체 신입생 중 △D-Teps=89.3%(2,811명) △Interview=81.9%(2,582명)의 학생들이 레벨테스트를 거쳤다.

하지만 영어강의가 보다 효과를 거두기 위해 고민해야 할 부분은 아직도 많다. 현재 영어강의는 교양보다는 전공위주로 강화된 측면이 있

다. 교양강의를 주로 외래강사가 맡고 있는데, 외래강사에게 일반적으로 영어강의를 강요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미 전공강의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교수에게 전적으로 부담지을 수도 없다. 영어강의가 가능한 유능한 강사들 초빙하는 등의 자구책을 내놓아야 한다.

경제적인 인센티브는 영어강의 확대를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문제이다. 올해 신입교원부터는 영어강의가 신설될 때 1회에 한해서 교재개발비를 받고, 기존 교원은 동기부여를 위해서 보다 높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의견이 지배적이다. 학생들에게 제공될 다양한 영어강의가 개설되기 위해서는 유도책으로 적절한 '당근'이 필요하다. 학교 측은 108프로젝트에 따라 앞으로 영어강의 강사료 지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영어강의를 진행할 때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최대 수강인원을 20여명으로 제한하고, 파워포인트를 많이 사용하는 점을 감안해서 컴퓨터 강의실을 확보해야 한다. 또 영어실력이 있는 조교를 양성 및 지원하고, 교양을 강화해서 학생들이 영어강의를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교수법 제공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교수학습개발센터는 오는 28일 '효과적인 영어강의를 위한 교수법 워크숍'을 앞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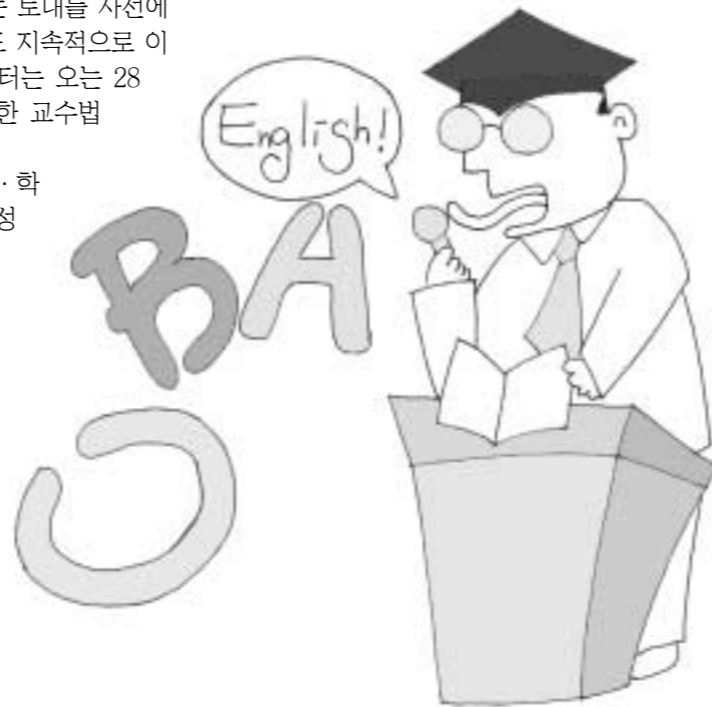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학생·교수가 영어강의의 필요성을 함께 인식하는 것이다. 노현균(영어영문학) 교수는 "특히 학생들이 듣기, 쓰기, 말하기 능력 등 현실적인 이익을 영어강의를 통해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의 영어수요를 학교 안에서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혔다.

108프로젝트에서 제시한 30%의 영어강의 확대

비율은 신입교원의 영어강의가 의무화되고 학과 별로 지속적으로 영어강의를 내놓으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단순히 영어강의 확대만을 놓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졸업요건을 보다 강화하는 등 학생들에게 '영어강의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 영어강의는 절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피하고 있다. 때문에 영어능력향상을 위한 본래 취지에 부응하기 보다는 쉬운 과목 위주로 졸업요건만 채워서 전시용이 될 우려가 있다.

지금은 전반적으로 영어강의의 필요성은 다 같이 공감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최영균(광고홍보학) 교수는 "현재는 정착을 위한 과도기 단계로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학교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목표를 가지고 학내구성원들의 만족도를 고려하며 체계적으로 강의를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정은미 기자  
eunmi@dongguk.edu



### 대학생과 건강 ① 술

## 올바른 음주습관의 시작은 대학생 생활 적정음주량으로 알코올성 간질환 예방



대학생이 되었다는 것은 본인의 행동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회생활의 시작이라 할 수 있겠지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술을 처음으로 접하는 시기이기도 하지요. 간혹 신문에 폭음 후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는 기사를 접하면 안타깝고 허무해 집니다.

'세살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라는 속담처럼 이 시기부터 올바른 음주습관을 갖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겠지요.

술로 인한 질병은 각종 암을 포함하여 여러 장기의 손상을 줄 수 있지만 간질환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것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 성인 남성의 음주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한국 성인 남성의 5명 중 1명은 평생 동안 알코올 중독에 빠질 확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만성음주자의 10~20%가 간이 흉터조각으로 대체되는 간경변으로 진행한다고 한다면 음주로 인한 간질환은 개인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음주량이 적정한가? 궁금할 것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모든 사람이 알코올성 간질환, 즉, 알코올성 간염, 간경변 또는 간암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일주일동안 마시는 술의 양 뿐 아니라 유전적 소인이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소인이 있는 사람이 매일 알코올 80g이상(알코올 도수가 대략 20도인 소주의 예를 들면, 1병 반에 해당) 10~20년 섭취한 경우 간경변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인에 따라 이보다 적은 양에서도 간경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범위의 음주량은 남자의 경우 일일 알코올 40g, 여자의 경우는 똑같은 양에서 더 심한 간질환에 빠질 수 있어 20g 이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코올성 간질환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본인도 모르게 되돌아올 수 없는 간손상, 즉 간경변으로 진행되는 경우를 임상에서 드물지 않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간경변보다는 주로 급성 알코올성 간염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급중하면 정상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반드시 급중하여야 합니다. 음주 후 반복적 상복부 통증, 심한 피로감, 우상복부 불쾌감, 발열 또는 코카콜라색의 소변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알코올성 간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병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술을 먹으면 얼굴이 남보다 빨개진다고 불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흡수된 알코올은 간에서 독성이 강한 아세트알데히드로 분해되는데 음주 후 흔히 겪는 구토, 두통, 얼굴이 빨개지는 안면홍조반응 등은 분해되지 않은 아세트알데히드에 의하지요. 홍조반응은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심한 홍조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술을 적게 마셔도 심한 불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적지만, 이러한 사람이 음주를 계속하면 간손상이 더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담배의 경우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감소시켜 더 많은 양의 술을 섭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삼가는 것이 좋지요. 자신의 적정 음주량을 초과하지 않고, 폭음을 피하고, 가능한 한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마시며, 공복 상태를 피하고, 음주 후에는 3일 이상 급중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건강을 해치지 않고, 즐거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사람이 알코올성 간염 또는 간경변으로 진행되는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젊었을 때부터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고 올바른 음주 습관을 갖는다면 예방 가능한 질환이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최원범  
동국대학교병원+한방병원  
사회기내과 교수

### 우리학교 논술

## 길라잡이

1. 동국대학교 통합논술, 이렇게 출제하고 평가한다.

# 종합적 문제해결 능력위한 통합교과 자료 제시

### 글 쓰는 순서

1. 동국대 통합논술, 이렇게 출제하고 평가한다.(윤재용 교수)
2. 인문계 모의 논술고사 해설 및 답안 분석(윤재용 교수)
3. 자연계 모의 논술고사 해설 및 답안 분석(성정석 교수)
4. 나는 논술고사 이렇게 준비했다.(인문계 신입생)
5. 나는 논술고사 이렇게 준비했다.(자연계 신입생)
6. 논술고사 이렇게 준비하세요.(인천대건고 논리학 교사 주영기)

통합 논술이란 무엇인가. 혹은 통합 교과과정 논술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전국의 고등학교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의, 형식, 대처 방법, 평가 기준, 유의사항 등 무엇 하나 익숙하지 않은데다가, 그간 배워온 교과 내용에서 집중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으므로 혼란스러운 건 당연하다. 간명하게 말한다면, 대학 학업 이수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별하기 위한 효율적인 선발 방안이라고 보면 된다.

논술은 논리적인 글쓰기이다. 교과 내용상으로 보면 작문 혹은 글쓰기의 하위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다. 그런데 기존의 논술은 어느 특정한 분야에 국한하여 출제되는 게 보통이었다. 이런 환경에서는 정치, 경제, 언어, 문화, 환경 등과 같은 분류가 유효했다.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문제가 단선적이다. 그러나 비

록 단선적이라 할지라도 어느 영역에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전 영역에 걸쳐서 준비를 해야 한다. 많은 책들을 읽고 생각하고 그와 관련한 글쓰기 연습을 해야

한다. 통합 논술이 이와 크게 다른 것은 아니다. 이전의 논술 준비할 때와 비슷한 학습량이 필요하다. 절대로 2배, 3배의 학습량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준비하는 방식에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통합의 가장 큰 특성은 교육 내용 영역의 전이와 융합이다. 즉 국어와 역사와 과학이 결합하여 하나의 주제를 만들어 내는 식이다. 어느 한 영역만 잘 한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학생들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창의적인 발상, 복합적인 사고, 풍성한 배경지식, 안정적인 세련된 표현 등을 선보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종합적인 능력을 대학은 선호한다. 왜냐하면 이런 능력을 미래 세대의 우수한 인재의 목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단순한 지식과 정보는 컴퓨터가 담당하고 있으므로 미래의 인재들은 르네상스적 지식인이 되거나 기계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창의적인 이야기의 생산이나 감성의 전파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 인력들은 대학을 졸업한다 해도 제3세계의 값싼 노동력에 비해 하등 새로운 것도 없는 능력으로 자본 시장의 외곽에서 떠돌게 된다.

산업화 사회, 정보화 사회를 거치면서 요청되어졌던 지식과 정보의 습득

능력은 이제 지식과 정보의 활용 능력으로 바뀌고, 기업들은 상상적 창의와 감성으로 자신과 조직을 마케팅 하는 소프트 파워형 인재를 요구한다. 대학의 입장에서 보자면, 현 교육 체제 하에서 수능과 내신만으로는 이런 역량의 씨앗을 검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야 더 우수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다고 대학은 목소리를 높인다. 학생과 교사들은 혼란스럽지만, 오늘날 대학들이 시행하는 통합 논술은 그래서 불가피한 측면이 강하다.

대학은 미래를 내다보고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통합 논술을 도입한다. 그러나 공교육에서 이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게 문제다. 교사의 지도 역량 부재를 탓하기에 앞서 시스템의 미비를 비판해야 한다.

지도할 수 있는 교사들이 턱없이 부족하니 때부터 풀 찾아 이동하듯 학생들은 때를 지어 사교육 시장으로 날아간다. 그 발판에 해마다 1조원 이상이 뿌려지고 앞으로는 그 규모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그런데 통합 논술은 본질적으로 사교육 시장에서 단기간에 익힐 수 없다. 초등교육과정에서부터 독서와 토론 그리고 사색과 창의를 요구하는 글쓰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수능시험 보고 나서 한두 달의 집중훈련으로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 것은 환상

에 가깝다. 요령을 익힐 수 있을지언정 콘텐츠 자체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학이 추구하는 통합 논술은 범교과적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교육 기관인 학교에서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다. 여러 과목의 선생님들이 뜻을 모으면 아주 흥미 있게 진행할 수 있다. 실제로 통합 논술 지도가 잘 되는 학교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교사들이 얼마나 헌신적인지 감동적이기까지 하다. 글쓰기는 원래 범교과적 특성이 있다. 사회과학이든 과학과학이든 교육 내용 영역에서 보면 모두 글을 쓰게 되어 있다. 즉 모든 과목들에서의 글쓰기-토론을 포함한 심층적인 글쓰기가 수업 시간에 충실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 교육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길 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 바탕 위에서 필요에 따라 과목별 융합 수업을 하면 된다. 그러니 조건으로만 보아도 학원 보다 학교가 월등하다.

동국대학교 통합 논술의 기본 방향은 이런 틀 위에서 준비된다. 지나치게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좋으며, 학교교육에 충실하면 된다는 점을 먼저 알려드린다. 기존에 비해 달라지는 점을 중심으로 요점을 정리한다.

우선 지문이 많아진다. 고사 시간도 150분으로 늘어나며, 답안 글자 수도

2000자 내외로 증가된다. 정보 이해능력, 문제의 발견과 해결 능력이 그만큼 중요해진다는 의미다. 지문의 성격은 통합교과 자료 제시형이다. 자료는 교과서, 고전 및 현대의 주목받는 저서들, 신문 칼럼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선별하지만 그 내용이 고교 수준을 크게 능가하지 않는다. 제시되는 자료들 중에는 도표, 그래프, 공식, 그림, 사진 자료 등도 있을 수 있다. 문제는 3~4개이며, 인문계와 자연계 논술이 분리 출제된다. 그러나 분리 출제의 원칙이 항구적으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영역 전이의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 예컨대 인문계 문제의 경우 수리나 과학적 지식을 검증하는 문제가 일부 나올 수도 있다.

평가의 주요 항목은 정보 이해 능력, 논리적 분석력,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언어적 표현 능력 등이다. 항목마다 7개의 등급이 있으며, 등급에 따라 점수가 차등화 된다. 각 문제마다 배점이 정해져 있으므로 모든 문제를 풀 자신이 없거나 시간이 부족한 경우는 이를 참고할 만하다. 채점 방식은 문항별 전담 채점으로 할 예정이며 2~3배수의 평가위원이 참여하게 된다.

윤재용  
사범대 국어교육과 교수  
2008년 논술연구위원



# 교환학생을 꿈꾼다면 여기를 주목하라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교환학생. 우리학교, 우리나라를 넘어 해외에서 대학생활을 보내며 어학공부와 함께 전공공부도 할 수 있어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교환학생을 갈 수 있는 기회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우리학교 교환학생제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꼭 필요한 정보들을 챙겨보자.

정할 수 있다. SAF 협약대학은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를 비롯한 7개국 40여개 대학이다. 이번 학기에는 총 30명을 선발하는데 SAF 협약 대학 중 세계100위권 대학 합격자는 우리학교 등록금이 전액 면제된다. 세계 명문대학에서 강의를 듣고 대학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이니 관심을 가지고 문을 두드려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것이 파견교환학생에 대한 출국 전 귀국 후 관리인데 지금까지는 현재 교환학생으로 파견되어 있는 학생과 다음 학기 파견될 학생을 미리 연결시켜주고, 귀국한 뒤에는 개선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왔다.

앞으로는 교환학생으로 파견되기 전 설명회를 더욱 강화하고 관련책자도 제작해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한 데 모아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 교환학생 파견 가능 대학 지원자격

	일반 파견대학(기존 파견대학)	SAF 협약대학(이번 학기부터 시행)
지원가능 학기	3~5학기(UBC 6학기까지)	3~5학기
총성적 평점평균	3.0 이상	3.5 이상
학기당 평균 이수학점	15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대학	26개	40여개
국가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대만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장학금(학비지원)	파견학교 등록금 본인 부담시 등록금의 72% 파견학교 등록금 면제시 등록금의 36%	해당학기 등록금의 70% 세계100위권대학 합격시 등록금 전액

### 교환학생 제대로 알고 가기

현재 교환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미국 미시간주립대, 캐나다 UBC 등 6개국 26개 대학이다. 이는 선군관대 28개국 67개 대학, 경희대 21개국 68개 대학 등과 비교했을 때 선택의 폭이 좁은 편이다. 현재 교류하고 있는 대학중에 미국 미시간주립대, 노던주립대, 캐나다 UBC, 일본 대정대는 교류대학과 날짜 협의 중이어서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4월 중으로 교환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지원자격은 오른쪽 위 표 참조

### 비용부담 장학금 받아 해결하자

교환학생으로 파견되면 외국에서 생활하는 만큼 비용을 무시할 수 없는 큰 고민거리다. 교류대학 학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와 면제받는 경우 모두 우리대학에 내야하는 등록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감면해준다.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0미만이거나 취득학점이 15학점 미만인 경우에는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이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리학교에도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양쪽 학교 모두에 등록금을 내야하다 보니 비용이 부담으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지난학기 UBC에서 교환학생을 마치고 돌아온 이제인(교육3) 군은 "장학금으로 등록금이 감면되어도 교류대학과 우리학교에 등록금을 내다보면 부담이 큰게 사실이다"며 "학교측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교환학생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면 더 많은 학생들이 교환학생의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다양한 국가·대학과의 교류 필요

한편, 우리학교와 유럽 대학과의 교류는 거의 전무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유럽국가 대학과의 교환학생 파견을 위해 교류는 꾸준히 시도하고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유럽 국가 중에서도 영어권 국가를 원하거나 유럽보다는 미국에 있는 대학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한다.

경희대의 경우 일반적이지만 호 텔관광대를 강점으로 내세워 호텔관광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유럽의 대학들과 교류를 하고 있다. 외국인 학생들의 수강여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4~5개 정도의 영어강의를 마련해야 하는데 경영대학과 호텔관광대학에 20여개의 영어강의가 진행 중이다. 교양과목 중 심리학, 한국문화, 세계문화유산 등의 과목도 영어로 진행하고 있어 외국인 학생들의 수강여건을 만족시켜 준다.

우리학교도 우리학교만의 특성을 살린 분야를 홍보하고 다양한 영어강좌를 진행해 교환학생들을 유치할 만한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상호교환을 기본으로 하는 교환학생제도에서 외국인 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우리학교 학생들도 해외의 다양한 학교로 파견할 수 있다.

### 다양한 대학 골라 가기

그동안 교류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적어 원하는 학교에 교환학생으로 갈 수 없었던 학생들을 위한 반가운 소식이 있다. 올해부터는 SAF(Study Abroad Foundation ... 미국 인디애나 주 정부의 인가하에 2000년

설립된 비영리 공공 교육재단) 협약대학에도 교환학생을 신



### 이전 3학년 재학생도

### 교환학생 간다

이번학기부터는 3~5학기 제한이었던 교환학생 신청기준이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3~7학기까지 완화된다. 시기를 놓쳐 안타까워했던 학생들도 희망을 가지고 도전해 보시길!

교환학생을 파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 교류·실력 모두 업그레이드

SAF 협약과 함께 우리학교는 교환학생 파견 및 유치를 활성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제교류실 송민수 과장은 "교류 대학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유럽권 대학과의 끊임없는 교류시도와 함께 외국학생 유치에도 힘써야 한다"며 "현재 중동국가 중 영어권 국가와 인도 대학과의 교수와 접촉하며 교류의 물꼬를 띄우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좀 더 다양한 국가 및 대학과의 교류가 활성화 된다면 '글로벌 동국'의 미래는 가까워 질 것이다.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해외에서의 대학생활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 더욱 다양한 국가, 다양한 대학과의 교류 확대가 절실하다. 이와 함께 교환학생을 꿈꾸는 학생들 역시 세계 어느 대학에 파견되어도 동국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키워나가야 하지 않을까. 최미혜 기자

Imisonaral@dongguk.edu

## Q&A 교환학생을 위한 지침서

교환학생을 준비하다보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또 파견학교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럴 때 경험자를 찾는게 최선책이다. 캐나다 UBC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제인(교육3) 군에게 속 시원한 답변을 들어보자.

= 말 걸어주기를 기다리기보다 어색해 하지 말고 먼저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 우리나라에 대해 10분 이상이라도 설명할 수 있는 자부심과, 자신만의 특기로 남의 시선을 끌 수 있다면 금상첨화.

- 출국하기 전 교환학생 생활을 효과적으로 보내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 외국어로 듣고 말하는 능력을 기본으로 해당국가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해당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준다. 또 우리나라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 소개해 주며 선물할 작은 기념품을 준비하는것도 좋다.

- 언어적 차이, 문화적 차이는 어떻게 극복하는지.

= 처음에 말이 잘 나오지 않더라도 끝까지 대화에서 빠지지 않고 참여하려는 적극적인 태도와 노력이 필요하다.

문화적으로는 특히 동·서양의 사고 차이로 문화적 충격을 흔히 겪는다. 많은 학생들이 처음에는 거부감을 느끼지만 오히려 나중에는 보수적인 동양적 사상의 탈출구로의 매력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혼란 속에서도 그곳의 문화를 전적으로 따르기보다 탄력적으로 문화적 차이를 깨닫고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접목시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 교환학생으로 간 자매대학에서 수업을 들을 때 효과적으로 듣기 위한 방안은.

= 모든 말을 다 알아듣겠다는 욕심은 버려야 한다. 수업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요점을 찾겠다는 자세로 들어야 한다. 또 수강과목에 대한 강의계획서를 미리 살펴보고 배울 내용의 핵심어를 표시해 놓으면 강의를 들을 때 도움이 된다. 녹음기를 사용해 놓친 부분을 자투리 시간에 틈틈이 듣는 방법도 있다.

- 교환학생을 경험하고 어떤 점이 가장 도움이 되었는지.

= 한국을 넘어서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된 것이다.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의지와 자신감을 갖게 된다.

- 교환학생으로 자매대학에 가서 그곳 친구들과 쉽게 친해지는 방법은.

최미혜 기자  
Imisonaral@dongguk.edu

# 외국인 교환학생과 함께 대학생활 특별하게 보내요

“교환학생 언제 뽑나요?” “교환학생 지원자격이 어떻게 되죠?”

국제교육원 홈페이지에는 교환학생과 관련해 많은 문의글들이 올라와 있다. 많은 학생들이 교환학생 지원을 선호하고 있다. 자신이 원하는 외국의 대학에서 수업을 들으며 외국인 친구도 사귀고, 캠퍼스 생활을 누릴 수 있기에 경험과 공부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는 뜻 깊은 경험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대학생들이 외국대학에 교환학생 자격으로 파견을 그렇다만 반대로 현재 우리 학교에 있는 외국인 교환학생은 몇 명일까?

## 우리학교 외국인 교환학생 비율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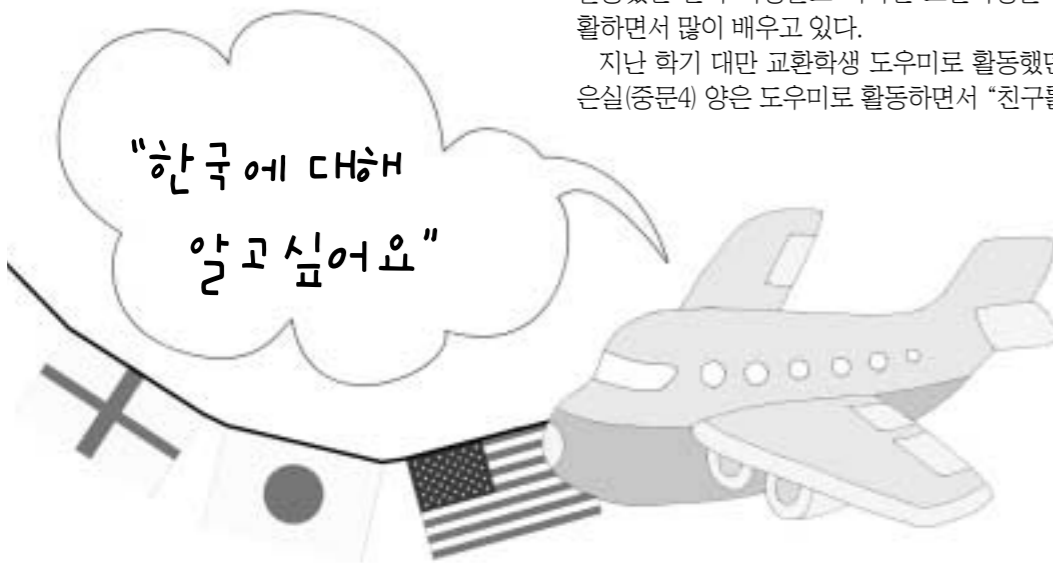
우리학교에는 현재 13명의 교환학생이 있다. 13명은 일본, 중국, 대만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고 오는 2학기에 아시아권 대학의 교환학생 10명이 추가로 우리학교 교환학생으로 파견될 예정이다. 하지만 파견 교환학생 전체 인원을 보면 아직 다른 학교의 교환학생 수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실정이다.

다른 학교의 경우를 살펴보면 고려대는 올해 1학기에 230명의 외국인 교환학생을 받아들였다.

외국인 교환학생의 국가 비율을 살펴보면 유럽 50명, 중국 80명, 미국, 뉴질랜드, 호주, 일본, 우크라이나 등 비교적 다양한 국가의 교환학생이 고려대로 와서 한국어 강의와 전공강의를 듣고 있다.

성균관대 역시 연간 100여명의 학생이 교환학생으로 와서 1학기에는 유럽학생 50명, 아시아(중국, 일본) 학생 50여명 정도가 교환학생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학교의 외국인 교환학생은 일본, 중국, 대만에 편중돼 영미권 및 유럽 대학의 외국인 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대학간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가 이뤄져야 할 때이다.



## 외국인 학생 유치의 관건은 지속적인 교류와 대학 특징 살린 홍보

기존에는 우리나라 대학에 아시아권 대학의 학생들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 들어서는 유럽권대학과의 학생교류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학교는 아직까지 유럽대학과의 교류가 활발하지 못하다. 유럽 대학과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학교만의 특색 있는 홍보전략을 이용해 학생을 유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성균관대 국제교류팀 김희경 계장은 “유럽대학들과 활발하게 학생 교류협정을 맺고, EAI 박람회 등에 참여해 학교간의 교류를 늘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 외국인 교환학생과 친구 되기 교환학생 도우미 제도

우리에게 익숙한 한국말, 식탁에 없으면 허전하다는 김치도 외국인들에게는 모두 생소한 것들이다. 그렇기에 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 교환학생들이 학교 이곳저곳에서 불편 없이 생활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 그들에게 특특히 ‘마니또’ 역할을 해주는 학생들이 있다. 바로 ‘외국인 교환학생 도우미 모임’이다. 각 대학에서는 외국인 교환학생들이 캠퍼스 내 생활을 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외국인 교환학생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학교는 지난 학기부터 외국인 교환학생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학기에 우리학교로 와서 도우미와 함께 생활한 이초이(중문2) 군은 “처음 학교에 왔을 때는 한국말도 익숙하지 않고, 한국 음식을 처음 접하게 되어 고생했는데 도우미와 함께 수업도 듣고 같이 문화도 공부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도움을 받는 것은 외국인 교환학생 뿐만이 아니다. 교환학생의 도우미로 활동했던 한국 학생들도 외국인 교환학생들과 생활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다.

지난 학기 대만 교환학생 도우미로 활동했던 우은실(중문4) 양은 도우미로 활동하면서 “친구를 사

킬 수 있다는 것과 동시에 후배들에게도 외국 학생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뜻 깊었다”라고 말했다.

외국인 교환학생 도우미 제도를 실시하는 것 못지않게 외국인 학생들과 한국학생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을 때 교환학생 도우미 제도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다.

지난해 일본인 교환학생의 도우미로 활동했던 정유리(일문2) 양은 “1:1 도우미 뿐만 아니라 외국인 교환학생들과 도우미들이 다같이 모여 함께 즐기고 친해질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연다면 더욱 더 친해질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제교육원 송민수 과장은 “유학생의 날”을 만들어 상반기 문화체험, 하반기 체육대회 등을 기획해 외국인 교환학생과 교환학생 도우미 학생들이 다같이 어울릴 수 있는 행사를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다른 학교의 경우를 살펴보면 고려대의 ‘KUBA’, 성균관대의 ‘하이클럽’, 서울대의 ‘스누버디’ 등 외국인 교환학생 도우미 동아리를 운영해 서울부터, 학교 축제 참여 등을 함께 하면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모임은 동아리 운영체제 형식으로 운영돼 학교 측에서는 지원을 해주는 동시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 외국인 교환학생 유치 늘리기 위해서 기숙사 시설 갖추는 것은 기본

외국인 교환학생들이 우리학교로 와서 생활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기숙사 시설이다. 특히 외국대학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재학생 전원이 캠퍼스 내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대학이 많아 교류대학의 기숙사 시설이 교환학생들이 교류대학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우리학교는 현재 충무로 영상센터 건물에 ‘Guest House’라는 명칭으로 기숙사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Guest House’는 45인까지 수용이 가능해 외국인 교환학생 뿐만 아니라 한국어학당에서 공부하는 외국인교과 관련 외국인들이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외국인 학생 유치를 늘리기 위해서는 외국인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 시설을 갖춰야 한다. 고려대의 ‘CJ international’ 성균관대의 ‘International House’는 외국인 교환학생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할애해 주고 있다. 우리학교도 기숙사 신축을 통해 외국인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늘리는 동시에 우리학교 학생과 외국인 학생이 가까이 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이뤄진다면, 교환학생 교류가 더욱 활발해 질 수 있을 것이다.

김지혜 기자  
iamjh713@dongguk.edu

## 외국인 교환학생 · 도우미 인터뷰



변민경(문과대 중문3)



호결청(문과대 중문3)

# 국경없는 특별한 친구

“다정한 벗을 찾기 위해서라면 천리 길도 멀지 않다”라는 톨스토이의 말처럼 국적이 다르다는 것으로 우정이 썩트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교환학생과 도우미로 만난 호결청(중문3) 양과 변민경(중문3) 양이 바로 주인공이다.

호결청(중문3) 양은 우리학교에 와서 교환학생 도우미를 소개받았다. 평소 한국어 선생님을 꿈꿔왔던 변민경 양이 바로 도우미인데, 앞으로 선생님이 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교환학생 도우미 모집에 지원했다고 했다. 그런데 처음 대면하는 자리에 호결청 양이 약속이 있어서 나오지 못했다. 변민경 양은 “그때 얼굴을 보지 못해서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할지 난감했다”며 당황했었다고.

호결청 양이 한국어 공부하기 시작한 이유는 한류에 관심이 많아서라고 한다. “H.O.T. 중에서도 장우혁을 가장 좋아한다”며 지난번 콘서트에 다녀왔다고 했다. 때문에 변민경 양이 도우미를 지원했을 때 다짐했던 ‘한국어에 대한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바꿨다.

중국의 대학에서 교과서로만 보았던 한국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호결청 양과 보통 친구들이 노는 것처럼 이곳저곳 다녔다.

변민경 양과 호결청 양 모두 인상 깊었던 장소로 꼽은 삼청동. “삼청동에 있는 거리

와 상점의 물건이 아가지기하고 예뻐다”고 말하는 호결청 양은 구경하는 내내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고 했다. 도자기 전시관에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관람하다보니 다른 전시관은 문을 닫아버렸을 정도라고. 그녀는 “한국음식 중에서 떡볶이를 가장 좋아한다”며 그날도 삼청동에 있는 맛있는 떡볶이 집에서 먹으려고 했다. 하지만 놀이 너무 길어서 먹지 못하고 수제비를 먹었다며 아쉬워했다.

또한 변민경 양은 호결청 양에게 자신의 친구를 소개시켜주기도 했다. 친구가 북경 어언대에 교환학

생으로 가게 되자 그 학교에 다녔던 호결청 양에게 궁금한 것들을 물어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이다.

변민경 양은 “호결청이 7월에 중국으로 돌아가면 자신의 친구에게 호결청의 친구를 소개시켜주기로 했다”며 호결청 양에게 도움을 받아 고맙다고 했다. 같이 보낸 시간이 많지 않아 조금은 아쉬웠다는 그들. 방학 동안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다가 개강 후 처음 만났다고 한다. 그럼에도 밝게 인사하는 모습에서 중국인과 한국인이 사이로 보기 보다는 두 명의 친한 친구가 떠올러진다.

이윤재 기자  
yiyoonjae@dongguk.edu

## 졸업요건 영어PASS제 토익시험(3월24일) 시행

영어PASS제는 졸업요건으로, 해당 대학/학과의 지정된 영어 점수를 졸업 전에 취득하여야 합니다. 정규시험(TOEIC, TOEFL, TEPS) 이외의 패스 취득기회 확대를 위해서 국제교육원에서는 PASS제 모의 토익을 시행합니다.

1. 접수 : 3. 19 (월) ~ 3. 21(수) 24:00까지 (인터넷접수)
2. 입금 : 3. 19 (월) ~ 3. 21(수) 24:00까지
3. 접수증 출력기간 : 3. 22(목) ~ 3. 24(토)
4. 취소 및 응시료 환불할 수 없습니다.
5. 방법 : 동국대학교 홈페이지-재학생서비스- 외국어PASS제- 영어패스시험 신청- 응시료 입금 - 접수증 출력
6. 시험 : 2007. 3. 24(토) 10:00~12:30 해화관 2층 강의실
7. 대상 : 졸업대상자 중 영어PASS제 미취득자
8. 응시료 : 5,000원
9. 입금마감일 : 2007. 3. 21 (수) 24:00까지 (미입금시 취소)  
입금계좌 : 신한은행 140-006-754830 (예금주 : 동국대학교 국제교육원)
10. 접수 주의사항 (아래 사항을 지키지 않을시 취소 가능)  
가. 학적부에 사진을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모든 학사서비스가 제한됩니다.  
학적부에 반드시 사진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마감일까지 반드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입금시 본인이름, 학번 또는 학과 표기: 예, 홍길동2025123)  
다. 기 패스자 및 미 입금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11. 시험일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접수증, 연필(샤프)
12. 문의 : 국제교육원 (해화관 1층, 2260-3471, 3590)
13. 시험 주의사항 :  
가. 9시 45분까지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10:00 이후는 절대 입실 불가.  
나. 신분증, 접수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입실할 수 없습니다.  
다.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시험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국제교육원

## 국제교육원 불학기 어학 특강

< 강의기간 : 2007. 3. 26(월) ~ 4. 13(금) 3주 >

### ▶ 수준별 원어민 영어 강좌 ▶

월/화/목/금	오전 8:00~9:00	오후 17:00~18:00	수강료
초급 conversation	Aaron	Irene	85,000원
중급 conversation	Michael	Roddy	
고급 conversation	Jayne	Jayne	
Debate & Discussion	Justin	Annie	
월/수/금	12:00~1:30 (월/수)	12:00~1:00 (금)	
Improving basic writing	Modesto		
월/화/금	11:00~12:30 (월/금)	1:00~2:00 (화)	
Interview & Presentation	David L.		

### ◎ 원어민 영어회화 :

- ▶ 자신의 수준에 맞는 단계별 수업 선정
- ▶ 검증된 실력의 국제 교육원 교수님과 만나는 즐거운 영어 세상.
- ▶ 수업 후 담당 교사 Comments & feedback 제공

### ◎ Discussion (토론 집중반) :

- ▶ 최근 시사 및 다양한 토픽 선정
- ▶ 영어항상을 위한 학생 중심의 수업!

### ◎ Improving basic writing :

- ▶ 이력서 및 영예세이 쓰기
- ▶ 실무 영어 학습을 기반으로 interview, business meeting & presentation 등의 주제 포함
- ◎ Interview & Presentation Skills :
- ▶ 취업준비생 및 비즈니스 현장 영어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 ▶ 실무 영어 학습을 기반으로 interview, business meeting & presentation 등의 주제 중심 진행

### ■ 등록 안내

접수처	동국대학교 해화관 1층 국제교육원 사무실
기간	접수 및 수강료 납부 기간: 2006. 3. 12 (월) ~ 3. 23 (금)
접수	문의전화: 2260-3590 / 3880 (문의시간: 오전 9:00 ~ 오후 5:00)
문의	국제교육원 방문 접수 후 수강료 송금. * 은행 송금시 본인 이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료 납부계좌: 신한은행 140-006-754830 (예금주: 동국대학교 국제교육원)

1. 동국대 재학생의 외부수강생 (대학원생 포함)은 수강료 1만원 추가
2. 환불: 개강 전 100%환불, 개강 후 3일 이내 80%환불, 개강 3일 후 환불 불가

동국대학교 외국어교육센터

## 2007 학군사관 후보생 모집

- 모집인원 : 0000명(2학년 남학생)
- 지원자격
  - 입원일 기준 만 20 ~ 27세 이하의 남자
  - 4년제 대학 2학년 재학생으로 3학년 진학 및 졸업합점 취득이 가능한자
  - 군인사법 제 10조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 지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7. 3. 12 ~ 4. 24
- 구비서류
  1. 지원서(4x5 사진부착) 1부
  2. 신원진술서 A양식 1부
  3. 대학 1학년 성적증명서 1부
  4. 칼라사진 3매
  5. 주민등록등본 2부
  6. 효적등본 2부
  7. 고교생활기록부 1부
  8. 가산점 증명서류 1부
- 선발 방법 / 일정
 

구분	학군사관
지원서 접수	2007. 3. 12 ~ 4. 24
체력 / 신검 / 면접	2007. 4. 25 ~ 5. 25
1차 합격자 발표	2007. 6. 22
인성검사	2007. 6. 25 ~ 7. 13
신원조회	2007. 6. 25 ~ 8. 24
최종 합격자 발표	2007. 8. 31

- 최종 합격자 발표 : 2007. 8. 31
- 특 전
  - 장교의 신분으로 전공분야의 실무를 터득할 수 있다
  - 재학기간을 최대한 이용하여 군사훈련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인 복무기간이 단축된다
  - 전역후에도 일반 입대자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취업이 보장된다.
- 접수 및 문의처 : 학군단(전화, 서울 2260 - 8537)

동계 해외봉사활동 체험기

# “라오스를 기억합니다”

1년 365일이 여름으로 머물 것 같은 곳, 붉은 흙먼지가 뿌옇게 일어나는 운동장에서 해맑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있던 그 곳을 기억한다. 뜨거웠던 햇살과 호기심으로 가득 찬 아이들의 눈망울, ‘싸바이 디~’ 그 합창 같던 인사, 16일간 동고동락하면서 이제는 가족이 되어버린 우리 단원들...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시간이었다.

처음 라오스란 낯선 땅을 밟았을 때 밀려들던, 첫날의 그 막막함과 공허감. 뼈대만 서 있던 단장초등학교 건물과 웅장했던 단장초등학교 식당, 그리고 텅 빈 공생도서관 외벽을 보면서, 그곳에 채워 넣어야 할 것은 비단 시멘트와 페인트칠만이 아니라란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빈 공간 속에 16일 동안의 우리 마음과 추억을 새겨넣어보리라 다짐했던 우리의 첫날이 있었다.

텅 빈 외벽에 바탕 그림이 그려지고, 선명한 페인트칠로 벽화에 생기가 돌 즈음, 우리는 어느새 그 곳의 풍경에 익숙해져 있었다. 자신 앞에 놓인 밝은 공기에 감사할 줄 알게 되었고, 마음으로 대화를 하는 방법을 익혔으며, 가진 것 없이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다. 진한 페인트 냄새에 머리가 아파도, 뜨겁게 내리쬐는 햇살에 땀이 흘러내려도,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풍경 속에서 ‘내’가 아닌 ‘우리’로, ‘혼



▲단장초등학교 식당 벽화 완성 후

자’가 아닌 ‘모두’라는 이름으로 존재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다는 그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그곳에서 마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뼈대만 서있던 초등학교에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쌓으며 우리는 그곳에 우리의 사랑을 함께 쌓아올렸다. 화단을 만들고 꽃나무를 심으며, 우리의 추억도 함께 심었다.

남아서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았던 책걸상을 고치며 그동안 빼놓아졌던 우리의 가치관을 바로 고치게 되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채, 그저 사랑과 믿음을 확인하고 싶

어 떠난 그곳에서, 나는 다시 사랑과 믿음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 되어 돌아왔다.

한국으로 돌아오고 이들이 지난 저녁, 한국에는 눈이 내렸다. 겨울이면 기다려지는 눈, 우리에게도 이토록 친숙한 눈인데, 그 나라의 아이들은 눈이 무엇인지 알까? 언젠가 그 아이들이 우리가 시멘트를 바르고 페인트칠을 한 그 교실에 앉아서, 사계절에 따라 눈이 내리고 꽃이 피는 이 곳,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닌 ‘COREA’에 대해 배우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안지혜(문과대 일문4)



##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 학교소식을 발빠르게 담을 수 있기를

지난호 동대신문은 108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과 등록금 인상이라는 어두운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108프로젝트를 선포한다는 소식에 이어 3면에서는 혁신과제, 추진과정, 발전전략을 다뤘다. 오영교 신임총장이 선출된 후 학교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궁금했는데, 이에 대한 내용과 분석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 유익했다. 특히 108프로젝트를 간단한 도표로 나타낸 것은 기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국내 언론매체와 교내 대자보를 통해 접했던 등록금 인상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한 눈에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학교 재정의 78%정도가 학생의 등록금으로 충당된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많은 재정부분을 학생이 부담하고 있는데 매년 학교 측에서 일방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등록금 인상이 항상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학교가

학생의 의견에 무심하기 때문일 것이다. ‘내부고객이 만족하고 외부고객이 감동하는 World Wide Dongguk’이 108프로젝트의 비전이라고 한다. 이 비전대로 학교 측은 내부 고객인 학생들의 의견에 성의 있는 응답을 해줬으면 한다.

108프로젝트는 성과주의를 중요시 하는 것 같다. 학생들에게는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교직원들은 적극적인 업무 태도를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우리학교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여 국내 최고의 대학교가 될 것이라 믿는다.

앞으로 동대신문이 학생들이 학교에 바라는 점, 학교의 주요 정책 등의 기사를 지금과 같이 균형 있게 다루길 바란다. 뿐만 아니라 학교와 학생이 상호 신뢰하며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전한 보도기관이 되길 바란다.

현운섭(공과대 전기공3)



독자 사진첩

베니스에 좁은 골목 길들을 유연하게 통과하는 두 곤돌라!

강현(공과대 전기공3)

## 달라나 천강에



고재석 사범대 국어교육과 교수

예상치도 못했다. 처참한 물결로 물줄기도 말라붙은 붓도랑에 처박혀 있던 나무 뿌리의 속살이 이렇듯 황홀한 동녘의 붉은빛을 머금고 있을 줄은. 뿐인가. 이웃들의 한가한 오전을 방해하며 이끼가 앉은 껍질을 그라인더로 털어 내기 전까지만 해도 이 비틀린 나무 뿌리에서 그토록 맑고 깊은 향기가 뿜어 나올 줄은 정녕 몰랐다. 지난 토요일, 재개발을 위한 토지 보상도

## 향나무와 무쇠술 그리고 철밥통

끝났는지 빈집도 많아 폐허처럼 변한 광명시의 야산을 거닐다 꽃밭처럼 만들고 해서 들고 온 향나무 뿌리는 이처럼 나를 두 번이나 놀라게 했다. 톱밥으로 누렇게 덮인 좁은 마당 한 구석에 물러나 앉아 반쯤 벗겨진 향나무 뿌리의 화사하다 못해 요염하기까지 한 속살을 다시 한번 바라본다. 어쩌면 이런 놀라운 변모를 확인하는 기쁨 때문에 이제는 그만 집안에 구질구질한 물건을 들이지 말라는 아내의 당부도 짐짓 못들은 척하는지도 모른다. 지난 2월 상원사를 거쳐 건봉사를 다녀오면서 무쇠술을 가져올 때도 그랬다.

오랜만에 쏘이는 바닷바람에 취해 평소의 지팡이를 던진 탓에 무거워진 머리를 식히려고 같이 간 동네 아저씨와 속초의 뒷동네를 돌아보다 고품상 한 쪽에 수북히 쌓여 있는 무쇠술 더미를 발견했고, 그중 튼실한 놈을 만 원도 안 되는 값으로 사 가지고 여관에 들여서 아내의 일행을 돌아다보며 아무도 못 말린다는 듯 웃기만 했다.

그러나 아내의 이런 난감한 표정도 불구하고 나는 집에 돌아오기 무섭게 마당에 쭈그리고 앉아 놈을 털어 냈고, 무쇠술은 화답이라도 하듯 바바람에 녹슬었던 속살을 서서히 보여주기 시작했다.

아마 붉은 녹을 털어 내고 동백기를 철해 주었을 때 그가 보여준 의젓함과 너그름이란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아니면 상상하기 어려우리라. 그래서일까. 요즘은 호미더 톱, 전지가위는 물론 아침마다 찾아와 짹짹거리며 참새들에게 주려고 사 온 짹짹 봉지 등을 넣어 마당 한 쪽에 밀어 놓은 무쇠술을 나보다 아내가 더 요긴하게 쓰는 눈치다.

지난 화요일 많은 관심 속에서 거행된 108프로젝트 선포식에 참석했을 때, 나는 마당의 무쇠술과 초석만 남은 가라타가 많아 허전했지만 그래서 더 장엄했던 건봉사의 경내, 그리고 아직 마무리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향나무 뿌리를 계속 떠올리고 있었다. 철밥통의 관행을 깨뜨리겠다는 단호

한 의지를 천명하는 자리였기 때문일까. 자리보전에 급급해서 어느새 학문적 열정과 패기도 다 잃어 버리고 녹슬기 시작한 무쇠술 아니, 차갑게 식은 철밥통으로 변한 자신에 대한 자괴심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아직은 많은 사찰에서 보여 주는 좁속에 가까운 복원과 증축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기에 오히려 더 중후하고 웅장했던 건봉사의 모습에 100년 동국의 미래를 겹쳐 보았기 때문일까. 108번뇌를 짚어낸 무쇠술처럼 무거운 발걸음으로 여름 속에서 봄을 기다리는 나무들이 서 있는 동약로를 걸어 내려 올 때 건봉사 사적을 편찬했던 만해의 시가 떠올랐다.

“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추수가 없습니다. 저너저리가 없어서 조나감자를 꾸러 이웃집에 갔더니 주인은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다’고 말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 나올 때에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 열린글터

독자여러분의 글과 사진을 기다립니다. 동대신문은 독자 참여 확대를 위해 독자여러분의 직접 혹은 사진이나 인화, 인방, 4대 분량의 글 등을 게재합니다. 채택된 글에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www.dgupress.com E-mail dgupress@dongguk.edu TEL : 2269-3461-2 FAX : 2279-1270

### 공중도덕 불감증과 우리의 자세

스스로의 공중도덕 불감증에 대해 생각해 볼 때가 종종 생기곤 한다. 며칠 전 지하철에서 한 남자가 새로 산 음악 CD의 비닐을 벗기고는 거리낌 없이 자리 밑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을 목격했다. 바로 옆자리였고 부피가 작다고는 할 수 없는 쓰레기였기 때문에 마침 내리는 역이었던 나는 쓰레기를 주워들며 남자에게 한마디를 하고 내렸다.

그러나 이내 돌아서서 생각한 것은 내 열매나 공중도덕 불감증에서 자유롭고 떳떳한 입장이냐 하는 것이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몰래 버리는 것, 남들 눈이 많은 곳에서 대놓고 버리는 것, 그 어느 쪽도 더 낫다고 할 수 없는 입장에서 과연 남자에게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말 운운할 자격이 있을까라는 것이었다. 자주라고는 할 수 없어도 어느 순간 분명히 내게도 부끄러웠던 순간이 많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나도 버리니까 남들이 버리는 것도 묵인해버리자고 외면해버리는 건 과연 옳은 일일까. 정의의 사도라도 된 양 도덕을 운운할 처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잘

못된 일을 보고도 수그르드느 소시민의 양심으로 변해가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갈 때, 이런 일을 통해 겪게 되는 자기반성이 커다란 자극이 되곤 한다.

당시 내 말을 들은 남자는 어쩌면 내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나도 그만큼 잘난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던졌던 내 말을 잘 이해해 주었다면 좋겠다.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흔하고 뻔한 사실이지만,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빠르게 습자한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다는 걸 잘 알아 살아야 하는 입장에서 말이다.

권호현(사범대 역교3)

### 학생들에게 만족감 주는 개혁돼야

학기 초에는 여러 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들린다. 매년 등록금이 인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업의 여건과 질은 충분히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기 강좌의 경우 수강생 수가 강의실 수용한도를 초과해 학생들이 수업을 옮기는 경우가 많다. 또한 수강생이 백 명을 초과하는 강의의 경우, 대학 교육 또한 주입식 교육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실감함을 안겨준다. 교육 또한 서비스라고 할 때 우리는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선택권도 없이 부당한 손해를 보는 것이다.

따라서 오영교 총장 취임과

함께 떠오른 개혁에 귀가 솔깃해진다. 그 가운데 교직원 성과급 차등 지급의 폭을 넓히는 것과 교원평가제 강화는 분명 학생들이 좀 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다. 학생들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우수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 즉 좋은 수업을 선택하고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부족한 점이 있을 경우 그 이후 개선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개혁 내용 중 또 눈에 띄는 것은 앞으로 신규 교수 채용의 기회를 확대해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줄이는 계획이다. 그러나 강의실이 늘어나지 않

는다면 앞서 제시한 계획을 실행할 수 없다. 따라서 그 계획과 함께 이루어져 할 중요한 과제는 동시진단에 여러 학생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강의실을 늘리는 것이다.

항상 새로운 개혁은 반발에 부딪히게 된다. 또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제도를 짧은 시간에 바꾸는 것 역시 어렵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개혁과 108프로젝트에서 언급되었던 계획들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만족감을 주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향후 몇 년 뒤 더 이상 학생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지 않는 우수한 학교,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국대가 되기를 바란다.

박동진(경명대 경영2)

### Mp3가 가야할 길

요즘은 그 사람들은 주로 Mp3플레이어를 통해 음악을 듣는데, 그 파일들은 소위 불법자료로 알려진 Mp3파일이다. 물론 저작권이 걸리지 않은 파일들도 있지만 국내 가수의 경우라면 정상적인 루트가 아닌 언그라운드 형식으로 배포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사회는 Mp3파일 배포에 대해 큰 골칫거리를 안고 간다. 가수의 입장에서는 불법공유를 금지하고 적정가격에 디지털 음원으로 구입하려고 하나, 네티즌들의 입장에서 ‘왜 그런 식으로 사서 들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지배

적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적절한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배포 루트와 배포의 정도를 볼 때, 정상적인 구매를 바란다는 것은 아주 힘든 요구이다.

조금 가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여러 음원사이트에서 한달 정액권을 끊어 듣는 경우도 있다. Mp3음원 파일을 인터넷에 노출하기 전 누군가의 해킹으로 피해를 본 가수도 있으니 기획사들도 한 이익 사수에 급급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어떤 수를 쓰든 간에 네티즌들에게는 무료 형식

으로 돌아갈 것이고 기획사와 가수가 원하는 금액 지불은 다소 힘들다. 그러므로 그들은 보다 많은 파일의 수를 빠르게 네티즌들에게 공급하여 홍보효과를 노려야 한다. 보다 많이 노출되면 정말 그 음악을 좋아하는 네티즌들은 구매하게 될 것이고, 보다 많은 인기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대중에게 친근하게 접근해 자발적 구매를 노리는 것이다. 현시대 Mp3파일 공유 문제는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 풀어야 할 큰 과제이다. 네티즌들과 가수간의 협력과 양보 사이에 좋은 방안이 생겨야 한다.

김건우(사과대 행정2)

### 금주의 식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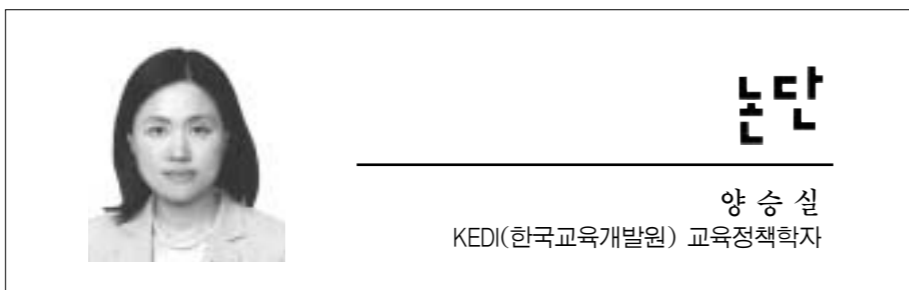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원 향
월	육개장 (2000) 미트볼하이리이스 (2000) 돈삼겹두루치기 (2000)	햄순두부찌개 (2000) 제육비빔밥 (2000) 간풍기 (2000)	된장찌개 (3200) 부대찌개 (3500) 버섯불고기 (3800)	열무된장국 (2300) 오삼불고기덮밥 (2900) 양송이볶음밥 (2500)
화	바지락수제비 (2000) 볶음밥&참고치 (2200) 집채달걀 (2000)	쇠고기국밥 (2000) 닭갈비스스볶음밥 (2200) 순대볶음 (2000)	된장찌개 (3200) 불낙전골 (3800) 삼겹살김치볶음 (3500)	양지떡국 (2500) 카레돈가스 (2900) 쇠고기집채밥 (2500)
수	장터국밥 (2000) 간풍육 (2000) 공보리열무비빔밥 (2000)	제육떡볶이 (2000) 쇠고기카레라이스 (2000) 김치볶음밥 (2000)	된장찌개 (3200) 날치알술밥 (3500) 닭조림 (3500)	김치오추장찌개 (2300) 중국식볶음밥정식 (2900) 두부김치덮밥 (2500)
목	닭곰탕 (2000) 제육덮밥 (2200) 오징어탕수 (2000)	설렁탕 (2000) 미트스스볶음밥 (2000) 날치알회덮밥 (2200)	된장찌개 (3200) 손민두국 (3800) 코다리무조림 (3500)	복어계란국 (2500) 치킨가스정식 (2900) 전주식비빔밥 (2500)
금	비엔나계집볶음 (2000) 참치육수수육볶음 (2000) 꼬치우동 (2000)	돈등뼈우거지탕 (2200) 쭈삼불고기 (2000) 돈갈비찜 (2000)	된장찌개 (3200) 비프커피렛 (5000) 해물덮밥 (3800)	어묵매운탕 (2300) 평양식비빔밥 (2900) 하이리이스 (2500)

# '3불 정책' 통해 본 대학자율 배달 사고 어떻게 풀것인가

'한국 국가발전에서의 교육의 역할 분석' 연구에 의하면 산업화 단계에서는 국민 기초 학습 성취에 초점을 둔 초중등교육이 국가 경쟁력제고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사회는 서구 선진국에 비해 늦게 시작하여 단기간에 축약적으로 진행된 산업화의 부작용에 시달려야 했다. 산업화의 열매로 OECD에 가입하는 패거리를 거두자마자 IMF관리 사태를 겪으면서 탈 산업사회화, 정보화, 세계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고 활용할 창의적 인재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지식과 기술 변화 주기가 급속히 빨라지면서 지식과 기술의 창출 메카로서의 대학의 역할과 경쟁력 강화가 중차대한 국가 과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 자율과 책임 바탕한 대학정책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국민의 정부 정책기조에 힘입어 산업구조의 고도화 발단이 구비되기 시작했으며, 현 정부 들어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의 이행을 촉진하고자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대학혁신정책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특히 대학 자율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대학을 육성하고자 대학에 대한 규제를 완화내지 철폐하고, 자율성과 책무성을 확



논단

양승실  
KEDI(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학자

대하는 한편, 대학지원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대학의 유형 및 특성에 기초한 정책을 추진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렇듯 자율과 책무에 바탕을 둔 대학 혁신정책이 추진되면서 대학과 정부간 정책 방안과 추진방식을 놓고 서로 다른 정책체감으로 갈등과 불만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우선적으로 정부당국에서는 최근 10여년간 규제완화위원회를 가동하고 규제일몰제를 시행하는 등 최소한의 규제를 제외하고는 대학 운영의 대부분이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다고 하는 반면, 대학에서는 취약한 자율성이 대학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율이 대학에 내려졌다고 하는데 대학에서는 이러한 자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배달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특히 '새로운 개념의 우수학생'을 '입시'가 아닌 '전형'의 마인드로 선발하도

록 입학프로그램의 개혁을 지향하는 '2002년 새대입제도'가 시행되면서 대학 입학 관련 '3불정책'이 대학과 정부간 자율과 규제 공방의 핵심에 놓이게 되었다. 입학전형에서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주지교과 중심의 대학별 본고사'만 빼고 다른 것은 다 자율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이들을 제외한 자율은 의미가 없다는 게 대학의 입장이다.

## 대학제도 범위의 명시 필요

문제는 익숙한 관행과 결별하지 못한 대학과 정부 모두에게 있다. 정책입안과 시행과정에서는 분명한 정책철학과 원칙이 공유되어야 하고, 정책이해당사자의 수용영역이 점명되어야 한다. 즉 대학운영주체(사립대학, 국공립대학)에 따라 어떤 정책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 현재 고등학교제도의 운영과 전형 원칙의 적합성이 있는지 등등에 따라 자율과 책

무의 내용과 범위가 명시적이어야 할 것이다. 기여입학제는 교육부 단독으로 허용여부를 결정할 영역이 아니므로 월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기여입학제 허용으로 해석되지 않길 바라며, 사회의 인식과 문화변화에 따라 논의되어 결정할 영역이라는 것이다. 고교등급제는 현행 고교평준화제도가 시행되는 한 평준화제도에 있는 고교를 등급화할 수는 없다. 다만 다양한 특수목적 고교가 운영되는 만큼 다양한 전형방법을 통하여 얼마든지 전공적성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 프로그램을 구안할 수 있다.

문제는 '새로운 개념의 우수학생'에 대한 치열한 고민없이 고등학교의 이름값에 비중을 두겠다고 하는 것이다. 또한 실체도 없는 본고사를 두고 본고사여부를 판가름해줄겠다고 나서는 정부도 문제고 시험위주 입시 관행을 벗어날 수 없고 신입생들의 입학성적만을 우수대학의 기준으로 여기는 고정관념에 빠진 대학도 문제다.

자율과 책무를 다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3불정책이 대학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일 것인지 정부와 대학 모두 치열한 반성적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관행과 결별하지 못하면 자율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없고, 점검행정에 연연하면 규제의 탈을 쓴 애물단지 자율이 될 수밖에 없다.

### 보리수 현대사회와 불교

오늘날 불교는 변화하는 한국사회의 전환점에 서 있다. 불교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우리들이 속해 있는 사회로부터 떠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오히려 불교는 명상과 수행을 통해 현대인들이 속해있는 복잡다단한 사회에 좀 더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처방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비록 고대인들의 초기불교교단이 지향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한발 물러나 스스로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불교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다.

불교는 과거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적인 기초 속에서 오히려 괴롭혀져 개혁의 대상이던 고리타분한 이미지가 비춰져왔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사회는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세계적으로 개방화되면서 더 이상 서구에 대한 열등감 속에 사로잡혀있지 않다. '우리의 것이 좋은 것이야' 라는 단순한 열등

감의 표현보다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야말로 가장 세계적'이라는 진취적인 자세가 주목받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 불교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역설적으로 초기불교교단이 그토록 떠나려고 했었던 사회 속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국적이면서도 불교적인 새로운 윤리관을 정립하는 것이다.

사실상 보다 당시에도 모든 불교인들이 열반(nirvana)이라는 지고의 목표만을 지향했던 것은 아니다. 열반은 출가자의 목표로 남겨져 있었고, 일반 신도들에게는 '주위를 돕고 계율을 지키면 극락세계에 태어난다.'는 실천적인 목표가 제시되었다. 이제 현대인들은 열반이란 지고의 목표만을 위해 불교인이 되지 않는다. 현대사회에 불교가 효과적으로 뿌리내리는 길은 이들에게 필요한 가치판단의 기준과 앞으로 살아갈 척도를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준에 맞게 제시하는 것이 아닐까.

황순일  
불교대학 인도철학과 교수

### 메아리 예고된 반란

▲ 아나운서들의 잇따른 프리선언으로 방송사가 몸살을 앓고 있다. KBS 아나운서인 강수정에 이어 최근 김성주 전 아나운서도 프리랜서 선언을 통해 MBC를 사직하고 연예기획사로 이직했고 모든 MBC 프로그램에서 물러나게 됐다. 그는 "스포츠 전문 캐스터가 돼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캐스터를 맡고 싶다"고 프리랜서 배경을 밝혔다. 방송사는 공들여 만들어 놓은 인력 유출 문제를 거론하며 '이적료' 개념 도입을 제안하는 등 뒤늦게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는 "월드컵 중계를 하고 싶다"고 프리랜서 배경을 밝혔다.

▲ 우리는 '지나친 상업화'나 '방송사에 대한 배신'을 묻기 전에 방송사 시스템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아나운서들은 보도국에서는 기자에게, 교양프로그램에서는 전문가에게, 예능오락프로그램에서는 개그맨들에게 밀리면서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지는 고정된 급여도 한 몫 한다. 결국 아나운서들의 홀로서기는 자기발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예측된 행로이다. 아나운서에게 '시청자의 사랑'으로 만족하는 말은 지나치게 강요된 측면이 있다.

▲ 아나운서 프리선언에 대한 찬반여부는 키워준 출신사에 대한 배신이나 아나운서의 소양으로만 판단될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방송사에서 예능프로그램에 간판 아나운서를 활용하며 프리선언의 한 원인인 아나운서의 예능화를 이끈 면도 있다. 또 아무리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를 키워주었더라도 방송사 역시 이익을 위해 아나운서를 기용했고, 개인이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쏟은 노력을 간과할 수 없다.

▲ 프리선언에 대한 옳고 그름을 지금 당장 판단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오히려 그들이 프리방송인으로 전환한 이유를 얼마나 보여주고 있는지를 '시청자의 눈'으로 판단해야 한다. 비단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스태 PD들도 프리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평생직장을 강요할 수는 없다. 시청자들이 프리랜서 MC들을 계속 보기 원한다면 굳이 어떤 규제를 내놓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우선 할 일은 그들이 또 다른 자리에서 끼와 재능을 얼마나 약속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은미 문화부장  
eunmi@dongguk.edu

### 사설 입시제도 대체 어디로 가나

2008학년도 대학입시제도가 갈팡질팡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200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내신비중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최근 주요 대학들은 2008학년도 입시요강을 발표하면서 수능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험생들과 각 고등학교교사들은 교육부와 각 대학들의 입시요강 중 어느 쪽에 방향을 맞춰야 할지 몰라 혼란을 겪고 있다.

우리학교는 4월 중으로 입시요강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학교 이번 년도 입시 요강이 과연 어디에 초점을 맞춰 나올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요 대학의 수능 비중 확대 요강에 맞출지 아니면 내신비중 확대에 초점을 들지에 대한 우리 대학의 소신 있는 판단이 요구된다.

2008학년도 수능이 8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 핵심 즉 핵심 각 대학과 교육부가 이번 년도 입시요강에 대해서조차 빠뜨릴 거리는 모습은 현재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듭해 나가면서 하루가 멀다하고 바뀌는 우리 교육제도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대학과 교육부가 대립양상을 보이는 것은 오늘 어제 일이 아니다. 대학과 교육부도 그동안에 대학의 자율성 강화에 있어서 '3불 정책 폐지'와 입시제도, 논술 체계까지 하나 같이 각기 다른 대학 발전상을 제시해 왔다. 물론 대학과 교육부가 발전방향에 있어 다른 입장을 취할 수는 있지만, 입장 차에 대한 절충과 수렴, 체계개선을 위한 노력은 이뤄지지 않은 채 대립 양상이 현재까지 수년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현재의 상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대학 발전 및 교육은 물론 중, 고교 교육에도 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세계적으로 높은 교육열을 자랑하지만, 세계100위권 안에 드는 대학은 없고 대학에 입학하는 대다수가 취업을 위해 의대와 법대로 진학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발전 모습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 전체의 대학 발전과 우수인재 양성 등 교육 분야가 모두 뒤쳐질 수밖에 없다.

대학은 우수인재를 대학에 유지하는 것과 함께 대학을 우수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는 학문 연구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현재 가장 급한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각 대학이 인재를 유지할지에 대해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확실한 입시 요강을 제시하는 것이다. 어느 방안이 진정 대학 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한 것인지 교육부와 각 대학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 동국만평 동국만평

이주현 niitake@dongguk.edu

2008 대입은 내신강화 시기로 이득을 보지 않는 것 아니겠나?  
2008 대입, 내신에서 논술로, 다시 수능으로...  
"살으로는 안가나?"

발행인 오영교, 편집인 겸 주간 윤재웅, 편집장 강지혜

인터넷 동대신문 http://www.dgupress.com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구독문의 :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058 팩스 (054)770-2057

### 3월 독서토론 프로그램 안내

중앙도서관에서는 학생들의 교양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독서의식을 고취하고 대학 내 성숙한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3월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니 학생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독서토론 프로그램이란** : 학생(대학원생 포함)들과 독서토론을 원하는 독서를 신청받아 교수(강사 포함)가 진행자가 되어 학생들과 토론을 자유롭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일 정**  
일 시 : 3월 30일(금) 오후 3시 ~ 5시  
장 소 : 중앙도서관 사회과학실(지하1층) 특수자료실  
진 행 : 화학과 여인형 교수  
신청도서 : 역사를 바꾼 17가지 화학이야기 1/ 페니 르 쿠티, 제이 버 레슨 공저, 사이언스북스 2007  
정 원 : 10명
- 신청방법**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lib.dongguk.edu/) <도서관광장> 내 <이용자 교육> 코너를 통해 신청순으로 모집하며 토론도서 관련 동아리의 단체 신청과 중복신청도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신청도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독서토론 신청 후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차후 중앙도서관 독서토론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될 수도 있다.  
\* 토론에 성실히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도서상품권(1만원)이 지급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도서관(02-2260-345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 앙 도 서 관

### 3월 영화감상토론 프로그램 안내

중앙도서관에서는 다매체시대에 영화를 감상하고 그 작품과 관련 텍스트를 비교 토론함으로 영상문학의 이해를 높여 학생들의 독서의식을 고취하고 대학 내 성숙한 토론문화를 정착 시키는 계기를 마련 하고자 3월 영화감상토론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니 학생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영화감상토론 프로그램이란** : 한 가지 테마를 정해 관련 도서들을 읽은 후 영화나 DVD를 개별관람하고 교수(강사 포함)가 진행자가 되어 학생들과 토론을 자유롭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일 정**  
일 시 : 3월 29일(목) 오후 4시 30분 ~ 6시 30분  
장 소 : 중앙도서관 사회과학실(지하1층) 특수자료실  
진 행 : 독어독문학과 임호일 교수  
신청영화 : 향수 / 톰 뤼크베어 감독 2007년작  
관련도서 : 향수 / 파트리크 쥐스킨트 지음, 강명순 옮김, 열린책들  
정 원 : 10명
- 신청방법**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lib.dongguk.edu/) <도서관광장> 내 <이용자 교육> 코너를 통해 신청순으로 모집하며 영화 관련 동아리의 단체신청과 중복신청도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신청자는 관련 도서를 필히 읽어야 하며, 영화감상 후 입장권을 토론 당일 제출해야 합니다.  
영화감상토론 신청 후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차후 중앙도서관 독서토론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될 수도 있다.  
\* 토론에 성실히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도서상품권(1만원)이 지급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도서관(02-2260-345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 앙 도 서 관

### 홍세화가 말하는 대학생이 된 그대를 위한 두가지 당부

"배방의 시대, 젊음은 이 시대에 불온하라"

일시 3월 21일 수요일 늦은 6시

장소 학림관 소강당

주최: 민주노동당 동국대 학생위원회

주관: 문과대 학생회, 법대 학생회, 예술대 학생회, 사과대 학생회, 사법대 학생회(비)

문의: dgukdip.cyworld.com / 019-292-6150 (학생위원장 이종관)



외국인 유학생과 나누는 한국체험기

# “동악을 누비며 한국을 느끼다”

대학가에 국제화 바람이 불면서 우리 학교에서도 외국인 유학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북한에 대해 더 배우기 위해 한국에 왔다”고 말하는 마사이로 군을 비롯해 한국을 대해 알고 싶어 찾아온 유학생들.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한국에 대한 관심’만은 모두의 공통분모이다. 이들이 느끼는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중국에서 온 김호웅(경영1) 군, 모러란(사회과학1) 양과 몽골에서 온 오토건자야(경영1) 양, 볼로리아(생화학1) 양, 일본에서 온 마사이로(북한학2) 군이 생생한 ‘한국체험기’를 풀어놓는다.

있다. “존댓말이 없어서 선후배 사이가 친구 같은 중국과 달리 한국은 예절이 발달한 것 같다”며 모러란 양이 운을 띄운다. 마사이로 군 또한 “한국의 군사정책을 일본과 비교해 종합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 마사이로(북한2) 군.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김호웅 군은 아주 큰 점시에 음식이 가득 담겨 나오는 중국 음식문화와의 차이를 이야기 했다. 모두들 잦은 술문화를 이색적으로 바라보았는데 오토건자야 양은 몽골에서 보기 힘든 술자리 게임문화를 가장 기억에 남는 것으로 꼽았다.



▲ 모러란(사회과학1) 양.

“제가 느낀 한국은 이랬습니다”

그동안 낯설게만 느꼈던 한국에서 그들은 많은 것을 체험하고



“한국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학당이나 다른 학교를 통해 한국어에 익숙해져 있지만 여전히 수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수님들이 필기 없이 설명으로만 수업을 진행하거나 사투리를 사용하면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또 상대평가로 한국학생들과 경쟁하는 것은 결코 만만하지 않다. 그 외에도 홈페이지에 가입을 할 때 별도의 사진과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불편했던 기억보다는 유쾌하고 즐거웠던 기억이 더 많다. 모러란 양은 “한국은 줄임말, 인터넷용어 등 재미있는 말을 잘 만들어 내는 것 같다”며 “해드폰 문자에서 ‘맛아’를 ‘마자’로 보내는데, 우리가 표준어와 문법을 고민하면서 보내는 상황과는 반대”라며 웃는다. ‘뽕쫂’이라는 단어를 얼마 전에 알았다는 김호웅 군은 처음에는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건지 고민하기도 했다고. 또한 마사이로 군은 “친구가 누군가에게 ‘감아지처럼 예쁘다’라고 했는데 일본과 달리 칭찬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대요”라며 당황스러웠지만 재미있던 기억을 꺼냈다.



▲ 김호웅(경영1) 군.

“우리나라에선 한국을 이렇게 느껴요”

한류열풍 때문인지 다들 이전부터 방송 매체를 통해 한국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한국 드라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가부장적인 남편과 살림을 하는 아내, 대가족 등을 보며 ‘이런 모습이 한국 문화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로 와보니 생각과는 많이 달랐다. “몽골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하루에 두 번 이상 방송되는데 막상 한국에 오면 예상과 달라 실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라고 볼로리아 양도 덧붙였다. 그런가하면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 오토건자야(경영1) 양과 볼로리아(생화학1) 양.

가 온사마를 비롯한 한류열풍으로 인해 젊은 층과 팬들을 중심으로 많이 달라졌다고 한다.

“이런 점은 한국사람이 알아줬으면”

그런가하면 학생들은 의외로 자신의 나라에 대해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놀랐다고 말한다. “방송에서 중국은 정말 못사는 나라처럼 보이지만 중국은 발전하고 있고 워낙 땅이 넓어서 단순히 평가하기 어렵다”고 김호웅 군과 모러란 양은 강조했다. ‘밥을 손으로 먹는지, 말을 타고 다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는 오토건자야 양은 “한국이든 몽골이든 사는 것은 비슷하고 나도 말을 한번도 못 타봤다”고 말한다. 이에 질세라 마사이로 군 또한 일본사람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부정적인 선입견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배우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하는 그들의 눈빛에서 한국에 대한 애정이 느껴진다. 한국으로 첫 번째 발을 내딛은 후 동국으로 두 번째 발걸음을 옮긴 그들, 한국 친구들을 사귀는 것에 아직 어색하지만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말을 빼놓지 않는 이들에게 낯선 눈빛을 거두고 같은 동국인으로서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렵가.

문서영 기자

syoo@dongguk.edu

내 머릿속 그 작품 -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 매력적인 선율에 녹아난 정열의 집시여인 카르멘



▲ 오페라 카르멘의 포스터와 공연장면.

프랑스의 작곡가 비제(Georges Bizet, 1838~1875)의 오페라 카르멘은 메리메의 원작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었으며 집시에 대한 열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걸작이다.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은 전 4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막에서 연주되는 전주곡은 힘차면서도 애절하고 이국적인 느낌이 들어서 어느 한쪽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마력을 가진 선율이었다. 때로는 요한 슈트라우스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처럼 세련되게 이어지다가 격정적으로 팡파레를 울리는 서곡은 작곡가 비제의 천재성을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특히 내가 카르멘을 좋아하는 이유는 유럽의 작곡가 비제가 19세기 쿠바의 춤인 하바네라를 대상으로 곡을 쓴 것이 매우 독특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오페라 여주인공 카르멘은 전형적인 집시여인으로 모든 남자의 사랑을 정열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원초적인 에너지로 그 사랑을 변화시키는 야성적인 여성이다.

제1막의 아리아 하바네라에서 “사랑은 아무도 길들일 수 없는 들새처럼 변하기 쉽고 자유스러워...”라고 노래하는 카르멘은 그녀의 사랑의 본질을 끝도없이 변화하며 파멸로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제 2막에서는 먼저 간주곡 ‘집시의 노래’가 연주되는데 오케스트라의 화려함과 풍부한 화성, 섬세한 선율이 모짜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 중 밤의 여왕의 아리아를 연상시키며 행복하고 낙천적인 집시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어지는 3막의 간주곡은 조용하게 이어지는 산중의 모습을 정감 있게 잘 표현하고 있다. 돈 호세 카르멘을 따라 밀수꾼들과 한패가 되어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그의 약혼녀 미카엘라가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가져오면서 돌아가야 하는지 갈등하는 모습과 제2막에서 꽃노래를 부르며 “그녀가 던져준 이 꽃을 옥중에서도 밤낮으로 바라보고 지냈다”고 고백하면서 카르멘이 감동해 산으로 함께 가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모습이 연상되는 다양한 색깔의 아름다운 곡이다.

또한 오페라 카르멘의 무대가 1820년대 스페인 남부 대도시 세빌리아의 담배 공장 앞거리라는 점에서 이국적인 느낌이 많이 드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에스파냐는 유럽국가이기는 하지만 이슬람 문화가 한때 이 나라를 지배한 적이 있으며 알함브라궁전의 추억으로도 유명한 이국적인 색채의 나라이다.

투우의 나라이기도 한 에스파냐는 오페라 카르멘의 주요 등장인물인 에스카밀로의 너무나도 유명한 제 4막 ‘투우사의 노래(합창)’를 들어보면 활기차고 강하게 터져가는 투우사의 빨간 망토가 연상된다. 너무나도 유명한 이 곡은 역동적이고 처절한 사랑의 묘약인 카르멘이 항상 변화한다는 것이 그 비극의 씨앗으로 남아있는 동양적인 허무함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비극적이면서도 고독하며 역동적인 음악을 작곡한 비제가 집시 여인 카르멘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열정적인 사랑의 그림자가 결코 한가지 색으로 그릴 수 없는 다채로운 빛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서성훈(대학원 사학과 석사 3학기 휴학)



**노동부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업종·직종별 전문가 릴레이특강]**

겨레에게 진로 및 취업방향을 제시하고 고학년에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취업의 결정을 계몽하기 위해 1학기「업종·직종별 전문가 릴레이특강」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대상 : 전학년
- 접수인내 : 1회~10회접수(분관 취업지원센터 선착순 접수 (분관 2층 취업지원센터 재의원/교내 3935))
- 모집인원 및 장소 : **외당 선착순 100명 다량반 세미나실**
- 강의내용 : 업계 전망 및 동향 / 업종의 특징 및 인재상 / 근무환경 / 주요업무내용 및 분위기 / 취업전략(기본요건, 개인역량, 자격요건 등) / 질의응답
- 프로그램 안내 및 행사일시 (오후 5시30분~7시30분)

회차	일시	내용	강사명	소속
1회	3월20일	2007년 업/직종별 채용시장 가상도	정유민	job코리아 상무
2회	3월27일	《IT업》유비쿼터스 시대 새로운 일꾼되기 -채용동향 및 입사전략	공효식	LG전자 인사팀 과장
3회	4월3일	《금융업(은행)》금융권을 JOB이라! -채용동향 및 입사전략	박태상	기업은행 인사부 과장
4회	4월10일	《건설업》취업현황 해보라 -채용동향 및 입사전략	한용서	포스코건설 인사기획 팀장
5회	4월17일	《영업직》판매원 될 수 있다. -채용동향 및 입사전략	박노진	대우자동차 상무이사
6회	5월9일	《유통업》유통시장을 알면 직장이 보인다 -채용동향 및 입사전략	심학보	삼성테크스 채용과장
7회	5월16일	《공기업》바늘구멍 통과 전략 -채용동향 및 입사전략	고태호	한국토지공사 인사채용차장
8회	5월22일	《교사》사립학교를 뚫어라! -채용동향 및 입사전략	민 해	해원여자고등학교 교감
9회	5월29일	이재용 아니어서 따라잡기 -채용동향 및 입사전략	이재용	MBC 아나운서
10회	6월5일	큐레이터가 되고싶다! -채용동향 및 입사전략	이주영	국립현대미술관

**학생처 취업지원센터**

**노동부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커리어우먼 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여대생의 진로관리능력 향상과 취업을 계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커리어우먼 아카데미)를 시행 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여대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참가일정 장소 및 대상: 2007. 3. 16(금)~2007. 3. 19(토) 19:00~20:00 (대학원 721(인사)관 2층) **여대생**
- 참가일정 장소 및 대상: 2007. 3. 30(금)~2007. 4. 1(토) 19:00~20:00 (대학원 721(인사)관 2층) **여대생**
- 참가일정 장소 및 대상: 2007. 5. 11(금)~2007. 5. 13(토) 19:00~20:00 (대학원 721(인사)관 2층) **여대생**

**프로그램 안내 :**

구분	시간	교육명	장사
(금)	17:30~19:30	오리엔테이션 및 자기진단검사 MBTI성격검사/직업선호도검사	진로교육상담실, 진심상
	9:00~10:50	여성의 생애설계와 비전만들기	지문정 (과도인)
	11:00~12:50	여성 셀프리더십	손은영 (과도인)
	13:00~13:50	점심시간 및 Break time	
(토)	14:00~15:50	WOMAN 커리어캐이션 효과적 스토리텔링 기법	이은정 (과도인)
	16:00~17:50	면접 Image Making	황수희(이대), 박민희(이대), 김은경(이대)
	18:00~20:00	인사서류 클리닉	송영희, 이은정, 황희, 이경 (취업지원센터)
	10:00~11:50	★커리어우먼 직업탐색★ 여성유망직종 탐색 및 취업전략	이은정 (취업지원센터)
(일)	12:00~12:50	점심시간 및 Break time	
	13:00~14:50	커리어우먼 실전 액션	김주영(인사팀) (내), 김은경(부) (과도인)
	15:00~16:50	면접 컨설팅의 전공별 소그룹 클리닉 (국·영문이력서, 자기소개서)	이은정(과도인), 박민희(과도인), 김은경(과도인)
	17:00~18:30	신배와의 대화	양민정(상선동), 이지영(상선동), 김민정(상선동), 조은희(상선동), 최은희(상선동), 김성희(유명동), 윤현희(상선동), 이은정(사물부동), 박정희(상선동), 황은희(국대동)
	18:30~19:00	행사 평가 설문조사 및 수료식	진로교육상담실
	19:00~20:00	엔트림 TIME 선배·후배 식사 및 간담회	진로교육상담실

**접수인내**  
분관 2층 취업지원센터 선착순 50명 접수 (분관 2층 취업지원센터 진로교육상담실 재의원 / 교내 3935)

**제출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취업지원센터에서 제공)

**모집인원**: 기술별로 선착순 50명 (예비인원 50명까지 신청가능)

**특**: 점심식사 및 음료(과도인) 제공  
수료증 발급(학장처장 명인) → **집시우먼 아카데미** 진행 시 **불우 요건** 시  
우수참여학생 기물 3명(신발 상품 지급(1GB USB 메모리장치))  
프로그램 종료 후 **희망직종별 그룹 스터디**로 연계 (월봉비지원)

**학생처 취업지원센터**

**100**  
DONGGUK UNIVERSITY  
지혜와 자애로 키워낸 이상인 인재가  
**새로운 100년의 두드림**을 시작합니다

**내 후배 사랑 300억조성**

**등록금 한번 더 내기 운동**

\*1%의 정성이면 100% 이루어집니다.

**월 3만원이면 큰 부담없이**  
**모교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 한번 더 내기 운동’은 학교발전의 주역이자 미래의 희망인 우수한 후배들을 후원하여 세계 일류동국을 앞당기자는 모교사랑의 구체적 실천 방안입니다. 적극적인 참여로 후배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기부참여방법**

- ▶ 월납, 분할납부 월3만원(100회(8년)) = 3백만원  
월5만원(60회(5년)) = 3백만원
- ▶ 기타 금액, 일시납부 등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합니다.

\* 등록금 한번 더 내기에 참여하신 동문께서는.....

- ▶ 그 고귀한 뜻이 후학들과 모교에 영구히 기억되도록 건학100주년 기념조형물에 새겨 보존하겠습니다.
- ▶ 아울러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전액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